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필리핀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10
4. 정치	13
5. 주요산업	15

II. 무역

1. 수출입	16
2. 한국과의 수출입	25
3. 수출 유망항목	29
4. 무역협정	35
5. 수입규제 및 관세	39
6. 통관 · 물류	43

III. 투자

1. 투자환경	46
2. 외국인직접투자	52
3. 한국기업 투자	54
4. 투자진출방식	60
5. 외환	69
6. 노무	71
7. 세무	77
8. 지식재산권	79
9. 청산 및 철수	80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82
2. 비즈니스 에티켓	85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88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88

5.출입국 안내	90
6.유관기관	92
7.물가정보	94
8.출장정보	97
9.생활정보	99
10.KOTRA 무역관 안내	111
11.전시회 정보	122
	123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필리핀(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면적	300,179 km ²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PSA), 2023년 최신자료)
수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인구	115,843,670 명 (자료원 : UN, Wordometer)
민족(인종)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인도네시아/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
언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영어(공용어), 지방 토착언어
종교	로만 가톨릭(81%), 기독교(11%), 회교(5.6%), 기타 종교
기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구분
국가원수	- 제 17대 대통령: 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 취임일: 2022년 6월 30일 (6년 임기)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49-03-03 (자료원 : 주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2024-04-0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제도 적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경감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에 관한 협정	
한-필리핀 2022~2026 EDCF차관 기본약정	2023-02-0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2022년~2026년 간 미화 30억 달러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명시.
한-필리핀 EDCF 기본약정	2018-05-0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한-필리핀 팜일만 EDCF 교량산업 차관약정	2016-04-28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팜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한-필리핀 항공협정 개정 교환각서	2016-02-2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교환각서	
한-필리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16-02-19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한-필리핀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4-04-0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DCF 팜팡가 재난위험감축사업 차관공여 계약	2013-10-1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간의 EDCF 팜팡가 재난위험감축사업 차관공여 계약	

한-필리핀 관세협력을 위한 합의록	2013-09-10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간의 관세협력을 위한 합의록	
한-필리핀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시행 약정	2009-05-30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한·필리핀 형사사법공조조약	2008-11-17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한-필리핀 군수방산 협력 양해각서 개정 약정	2019-07-10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한국교민 수

34,148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3월 3일 정식 수교를 체결했으며 아세안국가 중 한국과 수교를 맺은 첫 번째 국가로 6·25 전쟁 당시 7,420명의 군대를 파견 지원했다.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필리핀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한-필리핀 FTA 협상에서 상품시장개방과 관련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내 2021년 11월경 FTA를 최종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양국 간 합의안 내용을 토대로 2022년 4분기 최종 체결될 예정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를 비롯하여 한-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욱 활발한 교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9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지난 2020년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 2천억 달러의 GDP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이다. 금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2022년 6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식 취임 이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약속하며, 기존 두테르테 정부의 BBB(Builb,Build, BUild)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승한 BBM(Build Better More)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과 더불어 원전 산업 재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자문을 구하며 원전 산업 재개에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바탄 원전을 가동하거나 신규 원전 설립을 해야할 지에 대한 문의와 한국 측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2023년 2월 마르코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필리핀의 상원들은 2년만에 RCEP 비준을 승인하였으며 RCEP 가입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필리핀 참여하게 되었다.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는 이번 비준을 통해 필리핀 경제 성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RCEP에 참여한 회원국들과 경제, 제조, 기술, 농업, 천연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필리핀 투자청(BOI)은 RCEP 비준을 통해 해외 자본 유입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발 및 신기술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RCEP 네트워크를 통해 필리핀 외국인직접

투자(FDI) 유입이 증가와 필리핀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완화,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 및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이후 한국과 필리핀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국은 미국과의 조약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변화와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 대사는 지난 10월 필리핀 국방부 캠프 아길랄도에서 열린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 필리핀 군 최고사령관과의 회의에서 “방위산업 협력은 더욱 심화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필리핀 공군은 한국제 FA-50 다목적 전투기 12대를 도입하여 공군 방어 체계를 강화했고, 한국의 조선소는 필리핀 해군에 첫 두 대의 미사일 프리깃을 제공하여 마닐라의 해상 순찰 능력을 강화했다. 더 나아가, 이 군사적 파트너십은 앞으로 두 척의 코르벳함과 여섯 척의 해상 순찰선을 추가로 인도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양국 간의 방위 협력은 지역 안보와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 방문을 통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수교 75년을 맞아 ‘한-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공식 선언하며, 안보, 경제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 측은 필리핀-미국 연합훈련에 한국군 참여를 확대하고, 필리핀이 2023-2028년 동안 추진 중인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방 협력 강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필리핀 해양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을 통해 해상 초국가적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 등에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도로 건설 및 원전 협력 등을 포함한 총 20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13년 만에 성사된 국민 방문으로 양국 간 무역, 경제, 안보 협력이 한층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6월 출범한 마르코스 정부는 기존 두테르테 정부의 인프라 사업인 'Build, Build, Build'를 개선한 'Build, Better, More'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 전역에 걸쳐 자국민의 편의 및 삶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하며 철도, 도로, 공항 등 건설 및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공여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개발협력을 더욱 확대기로 합의했다. 동 사업으로 홍수 방지용 제방 설치, 학교건물 재건축 등 홍수피해 빈번 지역 중 하나인 팜팡가의 교육 및 위생환경 개선 노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필리핀에 제공한 EDCF 차관 승인 누계액은 2017년 11월 30일 기준 승인액 1조 116억 원, 집행액은 2,358억 원으로 집행 누계액 면에서 전체 지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필리핀 2017~2022 EDCF 차관 기본약정을 맺었으며, 2021년 10월경 필리핀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차관대출 1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신정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개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6월 4~5일에 걸친 두테르테 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SK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필리핀 LNG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제안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하는 한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우리 헬기 ‘수리온’ 구매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협력의 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필리핀 군현대화 사업을 위해 한국 현대 중공업 측에 3,000 t 급의 2척의 호위함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방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1월 한화 시스템즈는 필리핀 해군에 훈련센터 기증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한화 시스템의 함정 전투 체계를 수입하며 최근 도입한 초계함 두척에 장비할 예정이다.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간에 있어 한국 방산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분야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2019년 6월 양국은 한-필 양자 FTA 협상 개시를 선포하였으며, 2019년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팬데믹등 코로나 19 사태로 다소 지연됐지만 비대면 협상을 통해 2021년 11월 최종 합의를 진행하였다.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해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IPEF 참여 검토를 비롯한 RCEP 비준 촉구 등 기존 논

의 중인 통상 협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필 양국 간 FTA 최종 합의 안에 따라 2022년 4분기 중에 최종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한-필 양자 FTA를 포함한 RCEP 등 다양한 통상 협정을 통한 많은 교역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개발을 위해 한국 현대 건설 측에 약 2조원 규모의 남부도시철도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대 건설은 2020년 전략적 입찰을 통해 필리핀 남북 철도 북부구간 수주에 성공하여 필리핀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와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원전 산업을 재개하며, 한국 수력원자력과의 모듈식 원전의 활용 가능성 조사와 신규 원전 설립 등 한국 원자력 발전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약 8조 7,000억 페소에 해당하는 197개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IFP(Infrastructure Flagship Project)로 선정했다. 이는 필리핀의 '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대통령의 임기 내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 공항, 해상, 철도 개발 프로젝트 등).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주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Build, Better, More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70여 건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미래에 시행 예정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필리핀의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통상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참관 하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번 FTA 서명은 양국이 과거 2019년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해 교역 품목, 규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결과이다. 양국은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합의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FTA를 통해 경제 및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백신, 기후변화, 문화 등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은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에 체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발효 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며 FTA 발효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전력난과 높은 전기 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고리2호기와 동일한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를 사용하는 바탄 원전 재가동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바탄 원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경제성, 안전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가 재가동을 결정할 경우, 대한민국이 해당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져 동남아시아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 각 사업은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 이는 필리핀 인프라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두 사업은 한국 기업에 한정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는 필리핀 및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주는 마르코스 정부의 'Build, Better, More' 인프라 계획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이어질 후속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대된다.

문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류가 필리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사인 GMA7에서 2003년 '명랑소녀 성공기'를 시작으로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 여러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되면서 현재까지 300여 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드라마, 다른 방송사 중복 방영 포함). K-pop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공식 K-pop 팬클럽 77개가 'Philippine K-Pop Convention'이라는 사단법인에 등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빠진 필리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국가별 방한관광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방한 필리핀 여행객 수는 199,845명으로 전년 대비 71.9% 증가했으며, 전체 방한 국가 중 4위를 기록하며 필리핀에서 한류는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협력의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2017년 6월, 필리핀 교육부는 국립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했고, 교육부는 연내 수도 마닐라

에 있는 10개 중·고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인 Leonor Briones는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직후 한국 대중문화 인기와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필리핀은 한류 콘텐츠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 넷플릭스 플랫폼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등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통신, 건설 사업 등 다양한 브랜드(Bench, Pehnsoppe, Globe, Smart 등)에서 한국 연예인을 광고모델 또는 앰버서더로 채용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옥외 광고에도 한국 작품을 메인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3년에도 한류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마닐라 지역내에 정식으로 설립된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문화 축제 개최 지원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과 필리핀 주요 쇼핑몰에 한옥을 테마로한 한국관 설치 등 한국 문화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음반 시장 부문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어 현지 주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Spotify와 youtube 등 K-pop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 현지 가수들의 한국 노래 리메이크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K-pop 그룹들이 필리핀에서 콘서트를 하며 티켓이 쉽게 매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필리핀에서 K-pop의 인기를 보여준다.

2024년 필리핀에서 한국 식품의 수입과 유통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닐라 중심으로 한국 슈퍼마켓과 식당들이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면과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들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뽕다방, BBQ와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대거 진출하여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필리핀 내에서 한국 식품의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필리핀 시장에서의 더 큰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더 인텔리전스(Morder Intelligence)에 따르면, 필리핀 식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3%였으나,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1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의 가계 소비 지출은 5.6%, 경제 성장률 5.5%로 ASEAN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 기조와 더불어 한류 문화의 확산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9.6	6.3	7.6	5.5	
명목GDP (십억\$)	361.5	393.7	404.3	435.7	
1인당 GDP (PPP, \$)	8,199	8,892.8	10,486.6	11,339.59	
1인당 명목 GDP (\$)	3,298.8	3,571.8	3,623	3,860	
정부부채 (% of GDP)	53.5	53	59.3	57.6	
물가상승률 (%)	2.5	3	5.8	5.4	
실업률 (%)	5.1	6.6	5.7	4.7	
수출액 (백만\$)	65,214.68	74,644.68	78,836.93	73,522	
수입액 (백만\$)	89,811.54	117,779.3	137,155.01	125,946.3	
무역수지 (백만\$)	-24,596.86	-43,134.62	-58,318.08	-52,424.3	-
외환 보유고 (백만\$)	81,307.91	80,160.57	82,312.3	102,452.1	
이자율 (%)	4	2	4.75	6.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51.8	51.3	56.9	55.5	

<자료원 : IMF,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중앙은행(BSP)>

나. 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필리핀 경제는 최근 5년간 평균 6.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각종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사업 재개로 5.7%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 2022년에는 관광 산업 재개와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회복으로 7.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6.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쌀 급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5.5%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2024년 3월 개최된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및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가 예상되며, 민관합작법(PPP) 개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확대가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년 2분기 필리핀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하여, 이전 분기 5.8%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 부문(16.0%), 도매 및 소매업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부문(5.8%), 금융 및 보험 활동(8.2%)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필리핀 정부는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0%~7.0%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두 분기 동안 각각 6.0%씩의 성장이 필요하며, 국제 금융기구*들은 2024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을 6.0%, 2025년에는 6.1%로 예측하고 있다.

* (ADB) '24년 6.0% → '25년 6.2%, (IMF) '24년 5.8% → '25년 6.1%, (WB) '24년 6.0% → '25년 6.1%

2) 해외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 송금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314억 달러, 2022년에는 325억 달러, 2023년에는 33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의 7.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러한 송금은 필리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 가족들에게 송금됨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성장 동력원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필리핀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54억 8,146만 달러의 송금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수치이다. 소비자 구매력의 증가와 함께 식품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도 OFW 송금액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필리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인플레이션

필리핀은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와 제22호 태풍 '밤고'에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6%에서 4%로 조정했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022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5.8%를 기록했다. 2023년 초 인플레이션은 8.7%로 상승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7월에는 주택 및 식품 가격 하락과 교통비 절감 등의 영향으로 4.7%까지 낮아졌다. 필리핀의 주식인 쌀 가격의 급등과 공급망 문제로 가격 상승 압력이 있었으나, 정부의 긴축 조치로 10월부터 다소 완화되기 시작해, 2024년 1분기 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정부 목표 범위(2%~4%) 내에 들어왔다. 2024년 10월 인플레이션율은 1.9%로, 최근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하락세는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부문(8월 3.9%에서 9월 1.4%로 감소)과 운송 부문(0.2%에서 -2.4%로 감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및 지출 활성화와 기업 확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4) 기준금리

2024년 2월,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다양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 오버나이트 금리를 6.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유가 상승, 엘니노 영향으로 인한 국내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인플레이션을 하향 추세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2023년 1월에 8.7%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9월에는 6.1%로 완화되었으며, 정부의 물가 안정화 조치가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교통 요금 및 전기 요금 조정이 포함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4년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6.0%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되었다는 평가에 기반한 조치로, 엘리 레몰로나 BSP 총재는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1.9%로 집계되며, 전월 3.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 예상치인 2.5%를 하회했다. 이는 수입 쌀 관세가 35%에서 15%로 인하되며 쌀 가격 안정에 기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레몰로나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2025년에는 필리핀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5) 실업률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연간 노동인구 110만 명 중 약 60만 명이 저숙련 및 저임금 비공식 고용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서비스업에서 일용직과 같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필리핀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실업률이 7.8%에 이르렀으나, 2022년 5.4%, 2023년 4.35%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관광업 활성화와 마르코스 정부의 인프라 투자 유치로 인한 서비스업 분야 고용 확대, 해외 투자 자본 유입, 그리고 민관합작사업(PPP)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9월, 필리핀 정부는 '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의 실업률 목표치인 4.0%~5.0% 달성을 위해 노동고용부(DOLE)와 국가경제개발청(NEDA)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에너지, 물류, 물리적

및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무역, 공공 행정,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2024년 9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한 4.0%를 기록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22만 명에서 207만 명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6) 환율

필리핀의 연평균 환율은 2020년 1달러=49.6페소, 2021년 1달러=49.3페소, 2022년 1달러=54.5페소, 2021년 1달러=49.3페소를 기록하였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필리핀 페소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58.6페소로 강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달러=55.50페소에서 1달러=60.00페소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이러한 환율의 안정은 해외 필리핀 근로자의 송금,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부문의 강력한 수출 실적, 관광 수입의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와 같은 요인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다. 경제 전망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은 2024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을 2023년과 비슷한 5~6%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ADB

- 2024: 6.0%로 조정
- 2025: 6.2%로 상향 조정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필리핀의 내수 수요를 위축 유지로 인해 2024년 성장 전망 조정

○ IMF

- 2024: 5.8%
- 2025: 6.1% 소폭 하향 조정
- IMF는 필리핀의 금리 조정과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 민간 부문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 수출 증가에 따른 낙관적 경제 전망 동의

4. 정치

가. 정치체제

필리핀은 1987년 제정한 헌법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재임 기간은 6년 단임제로 6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대통령은 40세 이상의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선거 직전 기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년 단임제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은 자격이어야 하며 임기는 동일하지만 1차 중임이 가능하다.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6년의 상원 24명과 임기 3년의 하원 316명 이내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12명씩 개선된다. 헌법이 정한 하원의 의석수는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253석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전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합한 값이다. 2022년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제19대 의회는 2025년 5월 12일 중간선거를 통해 제 20대 의회로 교체될 예정이다. 과거 런닝메이트였던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가문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필리핀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형태 : 대통령제(6년 단임제)
- 의회 : 양원제
- 정당제도 : 다당제
- 주요 인사
 - 대통령 :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Ferdinand Bongbong Romualdez Marcos Jr, 제17대 대통령)
 - 부통령 : 사라 두테르테(Sara Zimmerman Duterte-Carpio)

나. 최신동향

- 미-일-필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 지정학적 협력 강화
 - 3국 정상회담, 남중국해 중국 활동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 보안 경제 안보 강화, 군사 경제 협력 확대
 - '루존 경제 개발' 계획 도입, 필리핀 주요 경제 중심지 연결성 인프라 현대화 목표, 경제 자립 지속 가능 발전 촉진
 - 미국 일본 기술 협력 투자 유치, ICT 인프라 청정 에너지 전환 반도체 첨단 산업 역량 강화, 경제 성장 국제 경쟁력 제고 기여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대외 관계
필리핀은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 및 제고를 목표로 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아시아 안보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일본-필리핀 간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한 EU,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도 FTA 서명 및 추진을 통한 경제 통상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ASEAN의 창립회원국으로서 ASEAN을 외교의 지주로 삼아 지역안보 증진 및 통상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사회적 특징
필리핀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인종 국가로 약 90% 이상이 말레이계에게 속합니다. 나머지 10%는 중국계 화교와 메스티소(미국/스페인 계 혼혈)가 차지하고 있으며, 화교는 필리핀 경제부분에서 그 활동이 두드러지며 메스티소는 교육수준이 높아 사회적 상류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33억명 (2016년 기준)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필리핀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모든 종교적 신념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영향으로 로마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약 83%에 이르며, 유럽 가톨릭과 달리 토테미즘과 융합된 형태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외에 약 9%는 개신교 신자이며, 이슬람교 신자의 경우 주로 민다나오 섬에 분포하고 있다.

라. 정책 · 법령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배,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계엄 정권 등을 거치면서, 입법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한 법률이 공존하는 법률 형태를 보인다.

- 헌법(Constitution)
- 법률
 - 공화국법(Republic Act, RA):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법률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일반적, 영구적 규칙
 -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마르코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효력을 가짐
-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보통 개별 법률에서 규칙 제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소관 부처에서 제정하여

공표

그 밖에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비롯하여,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 메모 명령(Memorandum Orders), 메모 회람(Memorandum Circulars) 등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2000년대 들어 필리핀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로 관광 및 레저, 숙박업, IT-BPO(콜센터)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2000년 이후 농업은 GDP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 역시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은 서비스 산업의 부흥에 힘입어 코로나19 발생 전 연평균 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마비로 -9.5%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경제 활성화로 7.6%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6.5%~7.5%의 목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5.5%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해 국제 주요 금융 기구들은 2024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2023년 필리핀의 업종별 총 부가가치 비중은 다음과 같다. 도매 및 소매업,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5.2%), 농림어업(5.5%), 금융 및 보험 활동(5.3%), 제조업(5.3%), 운송 및 보관(3.9%), 공공행정 및 방위, 교육(3.1%), 건설(3.1%), 부동산 및 주거 소유(2.6%) 순이며 기타 항목이 29.7%를 차지한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1)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기존 역량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며,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의 주요 서비스 분야인 IT-BPM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며, 인력 개발을 통해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서비스 중심지로 성장하고, 제조업과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 (2014~2017) - 노동 집약적 부문 발전(관광, 건축, 선박 수리, 항공기 정비 등), 인프라 투자 가속, IT-BPM 분야로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이전

2단계 (2018~2021) - 교육, 디자인, 연구 및 개발(R&D), 금융, 인프라 개발, 제조업 내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내재, 제조업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 혁신

3단계 (2022~2055) -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허브로 육성,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개선

2) 제조업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및 아세안에 기반한 생산 네트워크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조업 부흥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기반 제조업을 제조업 부문의 포괄적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및 농업협동조합 지원, 마케팅 및 금융조달을 위한 대기업과 협업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 국가총생산(GDP)의 30%까지 제조업 비중을 늘리고, 전체 고용의 15%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2014~2017) - 필리핀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 유지, 신흥 산업 강화, 기존 산업의 역량 강화

2단계 (2018~2021) -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 제조업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제조업과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연계 및 통합, 혁신적인 제조업 생태계 조성

3단계 (2022~2025)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 제조 산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부문 투자

3) 농업

자국 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및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통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업 부흥 정책은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의 산업화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량을 확대해 고질적인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

1단계 (2014~2017) - 역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성 향상, 신흥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성 강화

2단계 (2018~2021) - 생산(농업) 및 가공(제조업)의 연계성 강화, 공급망 및 제품 강화

3단계 (2022~2025) - 글로벌가치사슬 내 참여 강화, 스마트팜 등 현지 농업 생산력 확대, 생산량 확대를 통한 수입 의존 감소 목표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필리핀 경제는 신흥국 평균(4.2%)과 주요 경제권 대비 높은 6%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는 견고한 내수 소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낮은 실업률 등 긍정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인구 증가와 물가 안정이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연령 25.4세인 젊은 인구와 연평균 1.5%의 인구 증가로 향후 소비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도 2025년 3.4%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안정세와 맞물려 가계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함께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내수 소비 확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도 CREATE MORE법 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덕분에 2025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10.1% 증액하여 6.352조 페소(약 111.8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이 예산은 인프라 개발, 교육, 디지털 혁신, 식량 안보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필리핀 발전 계획(PDP) 2023-2028에 따라 이러한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 부문에서는 전자제품의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2024년 상반기 4.5% 증가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진출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교역량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24년 상반기 필리핀 수출은 전자기기 및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을 견인했다. 반면, 내수 공급 및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수입은 2.4% 감소한 614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25.4%), 인도네시아(8.0%), 일본(7.9%), 한국(7.4%), 미국(6.6%)이다.

1) 수출

2024년 8월 기준 필리핀 총 수출액은 49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6.4%), 홍콩(14.1%), 일본(13.8%), 중국(12.6%), 대한민국(5.0%), 순이다.

2) 수입

2024년 8월 기준 필리핀 총 수입액은 88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필리핀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25.5%), 인도네시아(8.2%), 일본(7.9%), 대한민국(7.4%), 미국(6.6%) 순이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0,602,202,935
2	일본	10,375,308,184
3	미국	10,303,995,601
4	홍콩	9,311,818,300
5	싱가포르	3,894,884,805
6	한국	3,004,316,336
7	태국	2,978,143,600
8	독일	2,878,948,639
9	네덜란드	2,217,650,980
10	대만	2,162,071,04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2,537,630,613
2	미국	12,176,573,192
3	일본	11,058,912,092
4	홍콩	10,003,212,798
5	싱가포르	4,303,283,941
6	태국	3,537,369,962
7	독일	3,361,910,332
8	한국	2,730,480,479
9	네덜란드	2,685,470,897
10	대만	2,582,728,372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2,839,162,056
2	중국	11,853,743,097
3	일본	11,424,931,218
4	홍콩	10,669,784,908

5	싱가포르	5,041,946,663
6	영국	4,123,236,043
7	네덜란드	3,617,157,929
8	한국	3,549,144,033
9	태국	3,470,535,811
10	독일	3,411,053,282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1,411,275
2	중국	10,648,023
3	일본	10,425,695
4	홍콩	8,772,535
5	싱가포르	3,521,265
6	한국	3,479,007
7	네덜란드	3,085,190
8	태국	2,930,182
9	대만	2,629,322
10	독일	2,478,89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2,107,475,783
2	일본	9,236,992,530
3	미국	7,491,735,800
4	한국	7,421,512,918
5	인도네시아	6,200,226,966
6	싱가포르	6,075,356,216
7	태국	5,250,553,400

8	대만	5,012,179,578
9	말레이시아	4,296,290,549
10	베트남	3,405,803,062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8,340,750,059
2	일본	11,904,576,217
3	한국	9,653,176,251
4	인도네시아	9,107,773,552
5	미국	8,336,567,334
6	태국	7,367,383,647
7	싱가포르	7,301,053,892
8	대만	6,104,774,130
9	말레이시아	5,606,533,238
10	베트남	4,514,072,54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9,913,448,166
2	인도네시아	13,971,824,648
3	일본	13,112,443,049
4	한국	12,776,508,797
5	미국	9,741,760,911
6	싱가포르	8,512,783,358
7	태국	7,704,004,749
8	대만	7,124,494,002
9	말레이시아	6,721,456,928
10	베트남	4,773,472,579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0,934,029
2	인도네시아	12,283,886
3	일본	10,920,814
4	미국	9,086,274
5	한국	8,879,728
6	태국	8,186,533
7	싱가포르	7,387,566
8	말레이시아	6,234,553
9	베트남	4,974,798
10	대만	4,931,77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24년 상반기 필리핀은 국제 경기 회복과 전자기기 및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반면 내수 공급 활성화와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수입은 2.4% 감소하여 614억 1,400만 달러를 기록다.

1) 수출

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광섬유 케이블, 자동자료처리기계, 팜유, 농산물 세정기, 변압기, 반도체 관련 제품이며 전자 및 반도체 제품은 다국적 전자회사의 반제품 및 완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산요(Sanyo), 인텔(Intel)

2) 수입

필리핀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류(휘발유, 경유),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토탄(석탄의 일종), 전자부품 등으로 전자 및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다. 원유제품과 광물연료, 기계, 철강 등의 자본재 수입 비중 증가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4,182,900,715

2	854239	기타	8,277,868,526
3	847170	기억장치	3,408,996,163
4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912,424,292
5	080390	기타	1,644,885,006
6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435,035,495
7	854232	메모리	1,191,533,266
8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1,068,399,890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25,324,795
10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90,259,66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4,145,238,459
2	854239	기타	6,752,605,183
3	847170	기억장치	3,730,308,720
4	854232	메모리	3,049,489,126
5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327,189,274
6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2,080,853,830
7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1,455,948,579
8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1,253,715,176
9	850440	정지형 변환기	1,178,989,313
10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147,699,557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4,953,508,844

2	854239	기타	11,685,195,892
3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149,435,309
4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378,389,976
5	847170	기억장치	2,335,173,439
6	854232	메모리	2,136,646,916
7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897,214,500
8	151311	조유(粗油)	1,461,046,437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353,906,006
10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1,258,876,930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12,762,945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0,674,691
3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657,154
4	854232	메모리	2,448,150
5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941,133
6	847170	기억장치	1,222,505
7	080390	기타	1,217,765
8	850440	정지형 변환기	1,104,079
9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1,080,375
10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973,38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7,030,532,597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277,397,352
3	271019	기타	2,672,997,994
4	854290	부분품	2,444,457,423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901,200,922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890,202,821
7	100199	기타	1,628,056,979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45,616,742
9	270119	그 밖의 석탄	1,238,429,517
10	851770	부분품	1,222,904,71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7,805,119,433
2	271019	기타	5,523,742,754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817,594,617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662,666,392
5	854290	부분품	3,156,741,047
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509,293,719
7	270119	그 밖의 석탄	2,456,022,997
8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979,353,927
9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58,290,110
10	100199	기타	1,949,462,286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9,675,632,534
2	271019	기타	8,817,601,212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89,835,821

4	270119	그 밖의 석탄	5,213,627,938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782,077,936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063,654,344
7	854290	부분품	2,727,770,452
8	100199	기타	2,583,198,218
9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019,372,126
10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918,458,507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9,910,122
2	271019	기타	7,447,49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162,596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772,468
5	270119	그 밖의 석탄	3,467,573
6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265,667
7	100199	기타	1,993,855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921,404
9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663,223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637,086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필리핀은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특유의 열대 과일이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제조공정을 통한 저렴한 소비재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홍콩, 일본, 중국, 한국, 네덜란드, 대만, 태국, 싱가포르, 독일 등 주요 10개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총 교역액은 2,066억 달러이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729억 달러, 1,337억 달러로 무역수지 -60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역량이 -4.31% 감소하였으며, 적자는 증가했다. 2024년 8월기준 총 교역액은 1,376억 달러이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91억 달러, 885억 달러로 무역수지 -39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필리핀의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전자제품 수요 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에 의한 필리핀 진출 기업들의 수출 증가,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필리핀 교역은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 기업들의 전자제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구조에 큰 의존성을 보인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필리핀과 한국은 1965년 12월부터 지속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교역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필리핀이 교역하는 225개국 중 한국은 수출 5위, 수입 4위로 상위 10개국 내에 포함된다. 주요 교역 품목으로는 소형전동기,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기타집적회로반도체, 와이어하네스, 바나나, 동괴 등이 있다. 반면, 필리핀은 경유, 자동차취발유,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스마트폰부품, 동선, 제트유, 트랜지스터, 안료, 철도차량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필리핀 FTA 발효로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며, 주요 농수산물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스마트팜 기술 등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 니켈 및 코발트 자원을 활용한 전기차 산업 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 투자 기회를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7,126	3,086	4,040
2021	9,659	3,894	5,765
2022	12,306	5,178	7,128
2023	9,009	4,645	4,364
2024	7,704	3,446	4,25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필리핀과 교역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수지를 보이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낮다. 대부분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유가 안정화를 비롯한 중국 발 석유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유를 제외한 석유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필리핀의 PCB 공정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입을 수입하거나 반도체 제품을 필리핀에 진출한 반도체 공정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컴퓨터,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안료등을 주로 수출 하고 있으며 유연탄, 과일류, 등을 비롯한 광물 등 주요 소비재나 식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1) 수출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7억 달러 기록했으며 주요 호조품목은 기타의 섬유제품(151.6%), 트랜지스터(93.7%), 경유(64.6%), 메모리반도체(51.3%), 스마트폰부품(40.8%) 등이 있다. 부진품목의 경우 고정식축전기(-35.7%), 안료(-25.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1.5%) 등이 있다

2) 수입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34.4억 달러로 주요 호조품목은 동괴(140.5%), 파인애플(32.7%), 제조담배(32.6%), 기타의 섬유제품(32.1%), 음향기기부품(21.8%) 등이 있다. 부진품목인 유연탄(-76.1%), 메모리반도체(-37.2%), 기타가정용전자(-28.7%) 등이 있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1,382	0	1,381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1,540	902	638
3	1331	휘발유	1,353	0	1,353
4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368	4	363
5	6222	동조가공품	233	20	212
6	8313	개별소자반도체	96	100	-4
7	1333	제트유및등유	159	5	154
8	7441	철도차량	23	6	16
9	2140	합성수지	127	5	122
10	2212	안료	192	0	19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1,970	0	1,970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1,678	733	945
3	1331	휘발유	1,191	0	1,191

4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362	1	361
5	6222	동조가공품	259	20	239
6	8313	개별소자반도체	215	70	145
7	1333	제트유및등유	171	5	166
8	7441	철도차량	136	0	136
9	2140	합성수지	134	6	128
10	2212	안료	130	0	13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540	902	638
2	8422	전동기	8	659	-652
3	8421	제어용케이블	87	314	-228
4	0116	과실류	4	280	-277
5	6221	동괴및스크랩	1	236	-235
6	8332	변성기	1	155	-155
7	0154	연초류	1	86	-85
8	1130	동광	0	150	-150
9	8228	음향기기부품	0	81	-81
10	4490	기타섬유제품	51	74	-2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678	733	945
2	8422	전동기	6	678	-672
3	8421	제어용케이블	67	310	-243
4	0116	과실류	3	285	-282
5	6221	동괴및스크랩	1	250	-249
6	8332	변성기	2	134	-132

7	0154	연초류	1	100	-99
8	1130	등광	0	94	-94
9	8228	음향기기부품	0	85	-85
10	4490	기타섬유제품	48	84	-3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건강기능식품

HS CODE	2106.90	수입액 (US\$백만)	54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7
선정사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헬스케어 시장 성장		
시장동향	- 면역력 증진 및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 보조제 및 비타민 제품의 수요 급증		
경쟁동향	- 일본과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필리핀 시장을 선도 -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품질과 혁신성으로 경쟁력 확보 가능		
진출방안	현지 식약청(FDA) 규제 준수 필수, 현지 마케팅 전략 및 유통망 확보 중요		

○ 의료 기기 및 장비

HS CODE	9018.90	수입액 (US\$백만)	8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
선정사유	필리핀의 의료 시스템 개선 필요성 증대, 고품질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병원 및 클리닉 수요 증가로 의료 장비 시장이 성장 중 - 필리핀 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 의료 장비 도입 필요		
경쟁동향	- 미국과 유럽 브랜드가 품질 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산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경쟁력 보유		
진출방안	· 심전도 기계, 초음파 장비, 휴대용 엑스레이, CT 스캐너 등 전문 의료 장비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인증 절차 및 현지 규정 준수가 중요, 현지 병원과의 파트너십 형성 필요		

○ 태양광 패널 및 인버터 장치

HS CODE	8541.29	수입액 (US\$백만)	177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3
선정사유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태양광 발전 시장 성장		
시장동향	-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증가, 특히 태양광 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 -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된 태양광 설비 수요 지속 증가		
경쟁동향	-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과 장비가 필리핀 시장을 주도 - 한국산 제품은 품질과 내구성에서 차별화 가능성 높음		
진출방안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필요		

○ 보안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

HS CODE	8523.49	수입액 (US\$백만)	248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
선정사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시장동향	- 필리핀 내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며, 데이터 보안 수요 증가 - 기업의 클라우드 및 디지털화 확대에 보안 솔루션 도입 필요성 대두		
경쟁동향	- 글로벌 보안 솔루션 기업이 필리핀에서 주요 시장을 점유 - 현지 중소기업은 맞춤형 및 중소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차별화 가능		
진출방안	현지 기업과 협업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로 접근 권장		

○ 모바일 액세서리 및 전자 기기

HS CODE	8517	수입액 (US\$백만)	939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2
선정사유	필리핀의 모바일 중심 사회와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관련 액세서리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음 - 온라인 쇼핑물 및 소셜 미디어에서 모바일 액세서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		
경쟁동향	- 중국산 저가 제품이 다수 유통되며 가격 경쟁 치열 - 품질과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고급 제품 수요 공략 가능		
진출방안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현지 마케팅 전략 필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필수		

○ 스킨케어용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 (US\$백만)	76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4
선정사유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꾸준한 수요		
시장동향	- 필리핀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가 지속 증가 - 특히 스킨케어 및 마스크팩 제품군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경쟁동향	일본, 미국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경쟁하며 안정적인 시장 점유 - 그러나 한국 화장품의 트렌디한 이미지와 신제품이 필리핀에서 강력한 경쟁력 보유		
진출방안	· 온라인 플랫폼(Lazada, Shopee 등) 활용 · 인플루언서,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메이크업 튜토리얼 제작 등 마케팅 방법 다각화		

○ 건설중장비

HS CODE	8429	수입액 (US\$백만)	519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53
선정사유	BBM(Build,Better,more)프로젝트 및 루존 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설 장비 수요 증가		
시장동향	'23년 부터 시행된 필리핀 인프라 개발로 인한 건설장비 수요 급증		
경쟁동향	'23년 시장점유율은 중국(50.9%), 일본(20.8%), 태국(9.8%), 인도네시아(1.7%), 인도(1.9%)이며 한국은 3위(10.2%)		
진출방안	경기회복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건설중장비 유통상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보 현지 진출 우리 건설기업 및 로컬기업 대상 납품협력 모색		

○ 가공식품(즉석식품)

HS CODE	1902	수입액 (US\$백만)	5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7
선정사유	한류 트렌드로 인해 매년 국내제품 수입량 증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1.2% 증가(점유율 3위)		
시장동향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섭취가 용이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온라인을 통한 식음료 구매 비중 증가		
경쟁동향	'23년 수입 기준, 인도네시아(27.6%), 중국(21.1%), 한국(15.7%), 아랍에미리트(10.5%), 호주(2.6%) 순		
진출방안	필리핀은 냉장유통시설이 미비하여 상온에서 보관이 용이한 식품류 유망 FDA인증이 필수이며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을 감안, 적절한 가격대 제시 필요		

○ 의료기기

HS CODE	901890	수입액 (US\$백만)	159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2
선정사유	2023년 필리핀의 對한국 의료기기 수입량은 198만 2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 일반 건강 관리용 의료기기 이외에도 환자용 의료기기 수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의료기기 수입시장 지속 성장 중		
경쟁동향	'23년 수입 기준, 독일(20.7%), 미국(13.8%), 싱가포르(12.6%), 중국(12.6%), 일본(12%) 순이며 한국은 1.3%로 14위		
진출방안	심전도 기계, 초음파 장비, 엑스레이 기계, CT 스캔 기계 등 전문 장비에 대한 마케팅 강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건강관리 관련 의료기기 분야 진출 모색		

○ 건강기능식품

HS CODE	210690	수입액 (US\$백만)	980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8

선정사유	필리핀 내 건강보조식품 수요 증가 및 한-필 FTA 발효시 인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수요량 증가 전망
시장동향	2023년 기준 필리핀 내 비타민 및 파생상품 소비량 4.7% 증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 증가, 관련 플랫폼 다양화
경쟁동향	'23년 수입기준, 싱가포르(37.5%), 인도네시아(10.4%), 중국(9.1%), 말레이시아(8.7%), 베트남(8.1%) 순이며 한국은 1.8%로 10위
진출방안	기존 슈퍼마켓, 대형 쇼핑몰 등의 오프라인 매장 지속 활용 필요 더불어 온라인 유통망 내 입점 전략 수립 필요

○ 자동차부품

HS CODE	7320	수입액 (US\$백만)	73
수입관세율(%)	000	대한 수입액 (US\$백만)	0.7
선정사유	상용차 및 승용차 운행 증가 및 필리핀 국토개발에 따른 부품 수요도 증가 전망		
시장동향	제조설비 확장에 한계가 있어 OEM 확대에 장애. AS부품/액세서리 부문 전망이 보다 나은 편 한-필 FTA 발효 시 수혜 품목		
경쟁동향	'23년 수입 기준, 태국(49.3%), 일본(12.3%), 중국(11%), 말레이시아(8.2%), 독일(5.4%), 미국(4.1%) 순 한국은 점유율 1%로, 10위 차지		
진출방안	자동차부품 전문 벤더 공략, AS부품 및 액세서리 비중 확대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재생에너지

선정사유	- 필리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 - 태양광, 풍력, ESS 등 신재생에너지 솔루션의 필요성 대두
시장동향	- 태양광,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 중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계획 추진 중 생산 기지 이전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분산 투자를 준비 중
경쟁동향	- 중국, 미국, 유럽 기업과 경쟁, 한국 제품은 품질과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진출방안	-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적극 활용 필요 -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 필수

○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 - 정부의 "Build, Build, More" 정책으로 인프라 수요 지속
시장동향	· 도로, 교통, 공항/항만, 수자원 개발, 철도 등 거의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 정부가 건설 산업에 대규모 투자
경쟁동향	중국, 일본 기업과 경쟁, 한국 제품은 품질 및 효율성에서 경쟁력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기업의 직접 진출이 어려운 업종으로 현지 기업/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진출이 바람직 · EDCF 지원 사업은 물론 외국 정부 ODA 사업 참여를 통한 인지도 및 노하우 어필이 중요
------	---

○ 보건/의료

선정사유	팬데믹 사태로 인한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격의료 수요 확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의 경우 일부 대형 병원 외 열악한 편 · 원격진료 및 출장 검진 서비스 수요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의 경우 일부 대형 병원 외 열악한 편 · 원격진료 및 출장 검진 서비스 수요 확대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료 규제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사전검토 필수 · 현지 병원 및 의료 기관과 협력 통해 진출

○ 조선해양

선정사유	해상 인프라 확장에 따른 선박 수요 증가 기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군함 건조 및 수리 수요 확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산업과 해상 운송 인프라 확장 중 - 필리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해군 관련 장비 발주 증가 예상
경쟁동향	한국, 중국, 일본이 선박 수주량 상위 3대 국가이며 이 외 현지 기업 Herma, Colorado Shipyard 등이 경쟁
진출방안	고부가가치 기술 수요 현지업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현지 정관계 네트워크 형성 및 규제 극복을 위한 현지 기업 파트너십 필수

○ 식품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한류 확산으로 한류 확산으로 최근 한식에 대한 관심 지속 최근 한식에 대한 관심 지속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에서 한국식 프랜차이즈 확산 중 -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일본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에 유리하게 작용
진출방안	한류 인기를 지속 활용하되 외식업 경험이 많은 적합한 현지 협력업체 발굴 필수

○ 제조업

선정사유	필리핀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부흥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외국 제조업체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시장동향	<p>기존 중국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로 생산 기지 이전을 준비 중이며, 어느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기 보다는 아세안 여러 국가에 생산 기점을 분산 투자할 것으로 예상</p> <p>필리핀은 취약한 제조기반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p>
경쟁동향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아세안 국가 등

진출방안

산업별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방안 모색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아세안 10개국	1992-01-28	1993-01-01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11-04	2006-01-06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12-13	2006-01-01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JEPA)	필리핀, 일본	2006-09-06	2008-10-08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04-14	2008-12-01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0-01-01	
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08-13	2010-01-01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 (PH-EFTA FTA)	필리핀, EFTA	2016-04-28	2017-12-08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 (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11-12	2019-01-0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23-04-03	2023-06-02	

<자료원 :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필리핀 가입 검토 중이다. 기존 회원국이 제시하는 가입조건에 합의할 경우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2월 3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라몬 로페즈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측으로 CPTPP 가입 관련 친서를 전달했으며, 2021년 5월 10일 로페즈 장관과 뉴질랜드 무역부 다미엔 코너 장관은 화상통화를 통해 CPTPP 가입과 관련 논의했다.

<p>Philippine-Korea Free Trade Agreement</p>	<p>한국</p>	<p>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 간 FTA를 추진해 이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2019년 4월 FTA 추진에 합의하고 6월 협상을 개시했다. 202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거쳐 2021년 10월 경 한-필 FTA 최종 합의를 했다. 이후 양측 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p> <p>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해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p> <p>한-필리핀 FTA는 필리핀 국회의 비준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이다. 바나나 관세가 현재 30%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5년 뒤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이 증가하며 농업 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15년간 연평균 662억 원의 국내 생산 증가와 2,570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연평균 1,34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p> <p>정부의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필리핀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 6,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연평균 19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는 FTA 발효 전 마지막 국내 절차로 완료되었으며, 연내 발효를 통</p>	<p>2021년 10월 한-필 FTA 최종 합의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통상협력 강화, 2023년 9월 정식서명, 2024년 9월-11월, 필리핀-한국 순으로 협정 비준</p>
--	-----------	---	---

		<p>로 완료되었으며, 연내 발효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p> <p>양국의 정식 서명을 통해 FTA 협정 체결이 마무리됐으나 발효 전까지는 한-아세안 FTA와 RCEP 협정을 통한 수출입 진행을 활용하기를 권고한다.</p>	
Philippine-UA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아랍에미리트(UAE)	2022년 3월 24일 필리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CEPA 협정 추진을 위한 화상 협의 진행했다. CEPA 협정 체결 시 GCC(걸프협력회의)를 비롯한 중동의 광대한 시장 진출 플랫폼과 석유 수입을 통한 무역관계 안정화 목표	2022년 3월 24일 협의 진행, 2023년내 체결 목표로 추진
Philippine-US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미국	2018년 8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회차에서 주요 시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팬데믹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으나 2022년 4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직접 미국 무역 대표부와 만나 협의 진행	2022년 4월 협의 진행, 2023년내 체결 추진
Philippines-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PH-EU FTA)	유럽연합(EU)	2024년 3월 18일 협상 공식 재개, 미래 지향적 경제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회담 재개를 통한 토의 활성화	2024년 3월 18일 협의 진행, 무역 관계 수립 목표 및 상호 협력 활성화 신호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랍에미리트 (UAE)	첫 번째 협상 라운드 완료; 두바이에서 2024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 상품무역, 관세 자유화, 기원 규칙, 통관 절차, 기술 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등의 주제 논의	협상은 2024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설정, 필리핀과 UAE의 외교 관계 50주년 기념이자 두 나라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함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39012000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High-Density Polyethylene)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22.9.30 ~ 2025.9.30	○ 판정결과 · 1년차 : 1,338 PHP / MT · 2년차 : 1,271 PHP / MT · 3년차 : 1,208 PHP / MT
2	25232990,25239000	시멘트(Cement)	세이프가드(조사중)	전세계	○ 조사개시일 : 2024.10.28	

수입금지품목

필리핀 수입규제품목은 다음과 같다.

- 중고차(3톤 이하 차량, 6-12톤 버스, 2.5-6톤의 트럭)
- 오른쪽핸들 차량 R.A. No. 8506
- 포르노 제품 / 재료
- 중고 의류 및 낚시 R.A. No.4653
- 장난감 총
-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Prohibited commodities under Section 101 of Presidential Degree (P.D.) No. 1464 (Tar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 도박 용구, 카드, 기구 등
- 복권, 경마권 등
-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 불량 의약품 및 식품
-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 우유 및 유제품, 배아, 피부, 정액을 포함한 살아있는 소와 버팔로 , DA memorandum order .No. 06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필리핀의 인증제도는 1964년 국가표준(PS) 관리와 규제를 위한 필리핀법 4109(Republic Act No. 4109)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인증제도 전반은 통상산업부 산하 표준국(BPS;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와 PS(Product Safety) 인증으로 구분된다.

필리핀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 제도가 별도로 없고 표준국이 매년 인증 의무대상 품목을 발표, 이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국에 200여 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어 ICC/PS 인증의 시험업무를 담당한다.

2024년 12월 기준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총 111개 품목으로 건설 자재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품목을 확장 하였다. 가전제품(29품목), 램프 및 전선 관련 제품(25개 품목), 철강 제품(6개 품목), 플라스틱 파이프 및 세라믹 품목(7개 품목), 시멘트 및 기타 건설 자재(11개 품목), 화학 제품(7개 품목), 자동차 관련 제품(8개 품목), 기타 제품(19개 품목) 등이며, 통상 기계 및 섬유 관련 제품은 필리핀 표준규격 조건(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을 준수해야 한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이하 필리핀 표준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list-of-products-under-mandatory-certification

국제인증으로는 ISO, IEC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인지도와 효용성이 높은 국제 인증으로는 ISO 9001이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제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ISO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최근 관심 사항인 것은 ISO 14064(지구 온난화 관련), ISO 26000(치안 관련), ISO 9000(건강 관련) 등이 있다.

1)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

ICC 인증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필리핀 국가표준(PNS) 규격에 따라 해당 제품이 품질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식품 등이 포함되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표준국에서 공표한다.

신청비용은 300페소이며, 심사비(심사원 이동, 숙박 등 관련 비용)는 실비로 신청자에게 부과된다. 별도의 인증 진행비(Processing Fee)는 송장금액에 따라 PHP 5000~PHP 1만까지 차등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매년 선적, 수입되는 물량에 한하며, BPSTC(BPS Testing Center)에 시험 신청할 경우에 한해 1년간 유효하다.

2) PS마크(PS Quality&Safety Certification Mark)

PS마크 인증은 신청업체가 ISO 또는 PNS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국내의 제조업체에게 부여되는 인증이다. 동 인증은 ISO 9000시리즈 규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인증마크 허가 후에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ICC 인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망라하고 있으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품질 규격국에서 공표한다. PS마크 인증은 ISO 9001,9002 기준에 따라 품질시스템 검사(공장심사)에 합격한 이후 해당 규격 샘플검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발급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필리핀 주요 인증 취득관련 필리핀 수출입 인증 조회(PNT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제품별 관세 조회시 확인한 HS CODE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제품의 취득 인증 여부와 기관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필리핀 인증 조회 포털 PNTR(Philippine National Trade Respository) : <https://www.pntr.gov.ph/search-commodity/>

3) 농산물 인증 및 관세 정책 관련

2023년 필리핀은 식량 안보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관련 정책을 도입하였다. 2023년 8월 31일 발효된 EO No. 39는 일반 도정미를 PHP41/kg, 정밀 도정미를 PHP45/kg으로 제한하는 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Republic Act No. 7581(Price Act)를 근거로 시행되었다. 또한, 2023년 1월 13일 발효된 EO No. 13을 통해 닭 및 칠면조 기계 분리 고기(MDM)의 특혜 관세(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식량 공급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TBT

○ 필리핀 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규제

- (규제 개요) 필리핀에 전자기기 등 77개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인증(CoC)을 취득해야 한다.
- (기업 애로) 현지법인에서 공청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역외 기업의 경우 BPS로부터 PS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기존에는 통관 후 거래선에서 직접 이동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6.2.4.4.항) 일정 평가를 통해 예외 스티커를 매 선적분마다 발급 받아야 하며(스티커가 없으면 제품 판매 불가), 평가·발급과정에 최소 8일이 소요된다.
- (대응 경과) 서면질의*(‘17.8월)를 통해 PS 라이선스 취득 제품의 추가검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필리핀은 우리측 의견을 초안검토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17.9월)
- 필리핀 측 초안에 우리측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 확인 요청했다.
-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18년 2차 위원회)
-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선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18년 3차 위원회)
- (대응 결과) 필리핀은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을 토대로 PS 라이선스 취득 역외 기업에 대한 별도 절차 현행수준으로 변경 요구, 진행 중 및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2024년 현재 진행중)

○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PESLP, Philippine Energy Standards and Labeling Program) 초안을 발표하였다.
- 에너지 소비 전기전자제품은 PESLP 규정 특정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에너지 성능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ILAC 시험 성적서 공증 없이 수용 요청, 라벨 갱신 의무규정 철회 요청, 다중분리형 및 상업용 에어컨 규제 대상범위 제외, 냉방 기간 에너지 소비 효율(CSPF) 측정 시 필요 계산식 파일을 요청했으며, 2024년 12월 기준 별도의 최신 개정안은 없으며 2021년 12월 개정안을 따르고 있다. 에너지 라벨링 관련 자료는 필리핀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홈페이지(<https://www.doe.gov.ph/energy-efficiency/energy-labeling-efficiency-standards-december-2021>, 홈페이지 문제로 인하여 하단 스크롤 후 내용 확인 필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TBT 관련 이슈는 정부 사이트(<http://www.bps.dti.gov.ph/>), 이메일(bps@dit.gov.ph), 전화(+63-2-8751-4700)로 문의가 가능하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해 집계되고 발표된다.

2) 관세율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집중된 농산물 분야가 11.83%일 뿐 광업(2.30%) 및 제조업(6.16%)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한-필리핀 양자 FTA가 최종 합의됨에 따라 2022년에 양측 간 수차

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해 9월에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은 FTA 협정을 통해 높은 수준에 개방에 합의했고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2024년 12월 31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며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은 한국산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되던 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은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되던 30%의 관세를 매년 6%씩 감축하여 5년 내 전면 철폐를 약속하며, 필리핀 주요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됐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필리핀항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의 10개 항구를 통해 필리핀으로 들어온다. 필리핀으로 들어온 화물은 주로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필리핀 내륙지역이나 다른 지방 항구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의 주요 항구로는 마닐라-마닐라 항구 (UN/LOCODE: PH MNL), 세부 (UN/LOCODE: PH CEB), 바탕가스 국제항 (UN/LOCODE: PH BTG), 수빅(UN/LOCODE: PH SFS), 카가얀 데 오로 (UN/Locode: PH CGY), 다바오 항구(UN/LOCODE: PH DVO) 가 있으며 주요 항구 이외에 지역별 항구로는 일로일로 항구(UN/LOCODE: PH ILO), 제네럴 산토스 항구(UN/Locode: PH GES), 잠보앙가 항구 (UN/LOCODE: PH ZAM), 루세나 항구 (UN/LOCODE:PH LUE)가 있다. 메인 항구를 기반으로 지방 항구로 이동하거나 물류 취합시에도 메인 항구에서 선적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필리핀은 2024년 3분기 누계 기준 5,718,428 TEU의 물동량을 기록했다. 또한 2024년 3분기 누계 기준 2억 1,827만 MT의 화물을 처리한 바 있으며 주로 마닐라 항구에서 화물의 물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마닐라 항구는 북항, 남항, 마닐라국제 컨테이너 터미널(MICT) 등이다. 필리핀 최대 상업 항구인 수빅항의 경우 6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너럴 산토스와 루세나의 경우 정확한 수치의 화물량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선 및 국제선만 아니라 많은 해운선의 수출입 허브이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필리핀의 주요 공항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 (IATA 코드: MNL), 막탄-세부 공항 (IATA 코드: CEB), 일로일로 공항 (IATA 코드: ILO), 다바오 공항(IATA 코드: DVO), 클락 공항(IATA 코드: CRK),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IATA 코드: PPS) 이며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공항으로 환승 하거나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23년 기준, 필리핀의 주요 공항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16.7% 감소한 485,879 MT를 기록한 반면, 막탄-세부 국제공항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2.5% 상승한 5,801만KG를 기록했다. 그 외 일로일로 공항은 9,360MT, 다바오 공항은 43,862 MT,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은 5,070 MT 처리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필리핀의 주요 화물 무역은 항공과 바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항만을 통한 거래가 집중되어 있다. 필리핀의 철도는 주로 사람들을 하거나 내륙 이동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 정부의 철도 시스템 개발 계획은 교통량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는 무역 규제 및 촉진, 수입 관세 및 세금 평가 및 징수, 불법 무역 및 기타 형태의 관세 사기 방지, 무역 촉진을 위한 관세 관리 시스템 고안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부(DOF) 산하의 정부 기관이다.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금을 제공하는 세법과 관세 및 기타 적용 관세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관세 현대화법(CMTA)는 수입 관세와 관련 요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이다.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과 대상이며 특정 범주의 상품의 수입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1) Ajay Menon. (2021). 10 Major Ports in the Philippines. <https://www.marineinsight.com/know-more/10-major-ports-in-the-philippines/>
- (2) Aiports in Philippines. <https://getbybus.com/en/blog/airports-philippines/>
- (3) Development, Operations and Maintenance of Davao Airport. <https://ppp.gov.ph/wp-content/uploads/2014/08/Davao-Airport-Project-Brief.pdf>
- (4) <https://dlca.logcluster.org/display/public/D>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 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한다. Door-to-door로 통칭하는 이 해외택배 서비스는 물류업자가 컨테이너 콘솔 작업을 거쳐 이삿짐 형태로서 타국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삿짐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솔 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일정이 안 맞을 경우 배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실에 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정식통관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하다.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 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우편통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 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을 사용한다. 현지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세관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우편통관 시 관세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제품값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시장평균가를 적용 후 측정한다. 물품반송을 위해서는 통관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품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한다.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만을 우선하여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 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폐 청산청(ARTA)이 개설 되었으며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고 접수 또한 가능해졌다. 2023년 팬데믹 완화와 경제 활성화로 현재는 물동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이 다소 발생할수 있으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지연상황은 감소 했으며 필리핀의 정부기관 및 기업이 전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통관을 비롯한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필리핀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필리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난감해한다.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TBB 해운항공

주소	TBB UNIVERSAL LOGISTICS INC. 2nd Floor Warehouse C GRM Compound Veterans Center, Western Bicutan, Taguig City
전화번호	+63-2-8475-9251
이메일	sales@tbbuniversal.com
홈페이지	http://www.tbbuniversal.com/index.html

○ CJ대한통운

주소	8/F, iMet BPO Tower, Metropolitan Park, Bay Area, Roxas Boulevard, Pasay City
전화번호	+63-2-8541-3904
이메일	kevinkim@cj.net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en/main

○ 아펙스(APEX)

주소	The World Center, Unit 25B, 330 Sen. Gil J. Puyat Ave, Makati, 1227
전화번호	+63-2-8887-5996
이메일	manila@apex.ph
홈페이지	http://apex.ph/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기업의 지분 제한과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Negative List)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이 취득 가능한 자본 비율을 업종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40%까지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건설, 물류 분야와 같이 업종별 관련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일례로 일반 물류업의 경우 동 Negative List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법(SEC Memorandum Circular. 30)에 의거 외국인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필리핀은 토지소유 및 업종별로 광범위하게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외국인투자법(FIA), 각종 업종별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토지 소유, 공공시설 운영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1935년 이후 헌법에 규정, 이를 법률화 해 일부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각종 이해관계로 진전 없음). 헌법(the 1987 Philippine Constitution)에 따라 공공시설(Public utilities) 운영(franchise, certificate 포함 모든 운영권 보유) 시 외국인투자 지분율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는 반드시 필리핀 국적자여야 한다. 단, 공공시설에 대한 외국인 지분 40% 허용은 공공사업법 제 4조에 의거한 공공사업 정의의 구체화 및 일부 공공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한다.

FIA, FDI Negative List에서 제외(외국인투자 허용)되는 것은 카지노사업(2010년부터 개방)과 은행업(2014년 7월부터 발효)이 있으며, 이미 설립된 평판 좋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외국은행만 진입 가능하며 본국 정부 소유 은행 또는 상장회사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지역 은행 소유 범위를 기존 60%에서 100%로 확장했고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4년 11월 발표된 시행규정에 따라 12월부터 외국은행의 신청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 필리핀 양원은 대부업(Lending Company), 캐피탈업(Financing Company), 증권투자업(Investment House), 손해사정업(Insurance 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6월 공정경쟁법이 발효됐으며 특정 제품 및 가격 관련, 경매 및 입찰 관련 담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합의 금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을 기존 시장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나 하청 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기업 인수 합병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필리핀은 현재 복수의 기관(19개)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중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과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이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며,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수빅만 경제자유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와 함께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건을 심사하고 해당기업을 등록, 관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BOI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투자건을 심사하며, 주로 천연자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 부여업무를 수행한다. BOI와 PEZA는 모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이며, CDC, SBMA는 독립기관 성격을 띤다.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등록 기업에 대한 유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대체로 주요 투자인센티브는 조세 감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토지 장기 임대를 허용해주는 입지지원이 있다. 현금지원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 CREATE 법

- 2021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법은 투자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도입되었다. CREATE법은 모든 투자유치기관(IPA)에 적용되며, 각 투자유치기관(IPA)은 CREATE법이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한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2020년 7월 1일자로 필리핀 법인 (Domestic Corporation), 거주/비거주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의 법인세(CIT)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낮추고 기업의 사무실, 플랜트, 장비 등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총자산 1억 페소 이하, 그리고 순과세소득 500만 페소 이하인 필리핀 법인 (Domestic Corporation) 의 법인세율을 20%로 낮췄다.

- CREATE법에 따르면, 인센티브 항목은 1) 소득세 면제 기간(Income Tax Holiday, ITH) 4~7년 적용, 2) 총소득(Gross Income)의 5%의 요율을 적용하는 특별 법인소득세 (SCIT) 5~10년 적용, 또는 비용 추가 공제 (직접비로 인식되는 인건비의 50% 추가 공제, R&D (연구 개발비) 100% 추가 공제, 인력훈련비용 100% 추가 공제 전력 비용 50% 추가공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추가 공제 등) 선택 3) 등록된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설비, 원/부자재, 부속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4) 등록된 프로젝트와 연관된 수입항목의 부가세 면제와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있다.

○ CREATE MORE 법

- 2024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CREATE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CREATE MORE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필리핀 내 모든 과세 대상 법인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추가 인하하고, 특별법인소득세율(SCIT) 및 Enhanced Deduction(ED)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17년에서 27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 또한, CREATE MORE법은 부가가치세(VAT) 면세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 기업 및 등록된 내수 기업이 프로젝트와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경비와 서비스 비용에 대해 VAT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간소화를 위해 RBELT(Registered Business Enterprise Local Tax)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2% 세율을 부과하며,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특수 비자(Special Visa) 제도를 신설했다.

제한 및 금지(업종)

12th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2022년 7월 14일 부)

LIST A: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 외국인 지분 0%(외국인 지분 보유 불허용)

- Mass Media - (1) recording 업종 제외(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1994.5.4.), (2) internet business 업종 제외(DOJ Opinion No. 40, s. 1998)
- 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 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 해양 엔지니어,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 중개사, 호흡치료사
- 협동조합 Cooperatives (Ch. III, Art. 26 of RA No. 6938, as amended by Ch. II, Art. 10 of RA No. 9520)
(협동조합의 외국인 지분은 동일하게 완전히 제한하나, 전 필리핀 출생 시민권자의 cooperative에 대한 투자는 필리핀 시민권자들의 투자권리와 동일하게 간주)
- 민간 경호 회사(Sec. 4 of RA No. 5487)
-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강, 호수, 만,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필리핀 전통 수탉 싸움 (Cockfighting) 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 (Sec. 5 of PD No. 449)
-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3
-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 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

o 외국인 지분 25% 이하

- 국내외 인력 송출업(Art. 27 of PD 442)

- 국방 관련 건설 계약(Sec. 1 of CA 541)

o 외국인 지분 30% 이하

- 광고업(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o 외국인 지분 40% 이하

- RA 7718 내 BOT 방식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해외차관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Sec. 2(a) of RA No. 7718)를 제외한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Sec. 2(a) of RA 7718)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소유 가능(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사유지 소유(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9182)

-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146)

-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

-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Sec. 5 of PD 194; Sec. 15 of RA 8762)

-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Sec. 1 of RA 5183)

- 상업용 심해어선 운영(Sec. 27 of RA 8550)

- 콘도 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Sec. 5 of RA 4726)

- 민간 무선통신 네트워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NTC Memorandum Circular No. 10-8-91)

LIST B: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o 외국인 지분 40% 이하

- 필리핀 국립경찰(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탄약, 화약류 등) (RA No. 7042 as amended by RA No. 8179)

- 필리핀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RA No. 7042 as amended by RA No. 8179)

- 유해 약물 제조, 유통(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공중보건, 윤리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단, Wellness centers는 제외)(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대통령 집무실 산하의 게임유희공사와의 투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경마 및 도박 관련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그 외 내용:

① Negative List에 포함하지 않는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인 내수시장기업의 투자 제한(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② 선진기술을 활용하거나 혹은 직원 50명 이상 직접고용 시 납입자본 10만 달러 미만인 내수시장기업의 투자 제한(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일종의 인센티브 조항으로,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선진기술을 가지고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50인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최저 납입자본금 여건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완화해준다는 내용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자유구역청(PEZA)

PEZA는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PEZA 산하의 자유무역지대 수는 다음과 같다.

- Manufacturing Economic Zone: 78개
- Information Technology Parks/Centers: 297개
- Agro-Industrial Economic Zone: 24개
- Tourism Economic Zones: 17개
- Medical Tourism Parks/Centers: 3개

2)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은 마닐라, 수빅, 세부와 함께 한국 등 외국기업 투자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클락 경제자유구역(총 33,000ha)은 1991년 11월까지 미 공군기지였으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필리핀 내 대표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됐다. 개발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동 지역을 CSEZ(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을 1993년 4월에 설립했다.

과거 미 공군기지였던 만큼 잘 정비된 도로(200km에 달하는 2~3차 간선도로 보유)와 국제공항(DMIA, Diosdado Macapagal Int'l Airport)을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시설이 장점으로 꼽힌다. 클락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기업 등이 진출해 있으며, 주요 한국기업으로는 SFA반도체, 계룡건설, PSPC, 동광종합토건 등이 있다.

3) 수빅 경제자유구역

마닐라 북서쪽 100km에 위치한 수빅경제자유구역은 1991년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빅 경제자유구역의 정식 명칭은 Subic Bay Free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줄여서 Subic Bay Freeport로 표기하며, 주유치 분야는 제조업, 관광, 소매업, 무역, 창고업 및 환적, 해안 및 조선/선박수리, 항만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및 기타서비스,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 등이다.""

산업단지

○ Cavite Economic Zone

규모	347ha
위치	Cavite 주 Rosario 및 General Trias
임차료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Cavite Economic Zone에 문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PEZA○ 전화번호: (+63-46) 8437-6090○ 이메일: cez@peza.gov.ph○ 홈페이지: http://cavite.gov.ph

○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규모	117ha
위치	Mamplasan, Binan, Laguna, LIIP
임차료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에 문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PEZA ○ 전화번호: (+63-49) 8539-0575 / 8539-0106 ○ 이메일: liip@peza.gov.ph ○ 홈페이지: http://www.liip.com.ph/aboutus.html

○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규모	315ha
위치	Batangas주 Sto.Tomas City 및 Tanuan City
임차료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에 문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PEZA ○ 전화번호: (+63-46) 8402-1007 ○ 이메일: fpip@peza.gov.ph ○ 홈페이지: https://fpip.com/

○ Clark Freeport Zone

규모	33,000ha
위치	Clark 주 Angeles 및 Mabalacat
임차료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Clark Freeport Zone에 문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 전화번호: (+63-45) 8599-9000 ○ 홈페이지: http://www.clark.com.ph/

○ Cagayan Special Economic Zone and Freeport

규모	54,118ha
위치	Cagayan주 Sta., Ana 및 Aparri
임차료	외부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 전화번호: (+63-918) 8800 1351 ○ 이메일: info@ceza.gov.ph ○ 홈페이지: https://ceza.gov.ph

○ Subic Bay Freeport Zone

규모	67,452ha
----	----------

위치	Subic
임차료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수빅자유구역청에 문의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 전화번호: (+63-47) 8252-4000 ○ 주소: Administration Building, Bldg. 229, Waterfront Road, Subic Bay Freeport Zone ○ 홈페이지: http://www.sbma.com

<자료원 :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메트로마닐라

- 인구: 14,942,000명 (2024 필리핀 인구센서스. 가장 최근 자료)
- 면적: 619.6km²
- 주요 도시: 마닐라
- 주요 산업: 메트로 마닐라는 총 17개의 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산업이 발달 되어있으며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음.
 - 나보타스, 마라본: 어업 중심 지역
 - 파라냐케: 무역, 일반 상업 중심 지역
 - 타기그: 상업, 공업, 휴양 시설이 복합적으로 발달한 지역
 - 마리키나: 신발 산업 중심 지역
 - 파테로스: 가금류 산업 중심 지역
- 주요 기관: 메트로마닐라개발청(<http://www.mmda.gov.ph/>)
- 비고: 메트로마닐라는 필리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수도인 마닐라 시와 주변지역을 합쳐 만들어짐. 메트로 마닐라지역은 필리핀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비즈니스 중심지인 마카티 지역과 BGC지역에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음.

○ 중앙 비사야

- 인구: 8,081,988명 (2020 필리핀 인구센서스. 가장 최근 자료)
- 면적: 15,875km²
- 주요 도시: 세부
- 주요 산업: IT 서비스, 제조, 관광산업
- 주요 기관: Cebu Investment Promotion Center (www.cebuprom.gov.ph)
- 비고: 중앙 비사야는 3개의 주와 3개의 시를 관할하고 있음. 중심도시인 세부는 인근 수심이 깊고, 필리핀 중부와 남부를 커버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면에서 필리핀을 대표하는 물류중심지임. 또한 세부 내 MAPEZA, Asia Town IT Park 등 경제 자유구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일본, 미국 등 외국계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 다바오

- 인구: 5,243,536명 (2020 필리핀 인구센서스. 가장 최근 자료)
- 면적: 2,444km²
- 주요 도시: 다바오 시티
- 주요 산업: 농업, 무역업
- 주요 기관: City Government of Davao (<https://www.davaocity.gov.ph/>)
- 비고: 다바오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남동부에 위치하며, 필리핀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임.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국제 항공이 있어 농산물 수출 등 무역이 활발한 도시임.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주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5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을 '23~'24년과 비슷한 수준인 6~6.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되었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 서비스법(PSA), 외국인 투자법(FIA), 소매업자유화법(RTLA)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2024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취약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전기자동차산업발전법(EVIDA)' 등을 발표하며 각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포함한 필리핀 제조업 부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23년 필리핀의 대내직접투자 금액은 약 62억 달러이며, 2022년 약 59억달러 대비 약 4.56%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120억 달러에서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소매자유화법(RTLA), 공공 서비스법(PSA), 외국인 투자법(FIA) 개정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유치 우선 분야(IPP)*를 선정하여 해당 부문 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12개 선호 산업 분야는 ▲국가 위기(코로나19 등) 대응 관련 산업 ▲Balik Probinsya Program 연계 지방 투자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전략 서비스 산업 ▲보건 서비스 및 재난 위험 경감 ▲대중 주택 공급 ▲인프라 및 물류 ▲혁신주도산업 ▲중소기업 연계산업 ▲환경 및 기후변화 ▲에너지 등이 있다.

* Investment Priority Plan으로 통칭하며 통상 3년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선정, 2020 IPP 유효기간은 3년('20~'23년)이며, 매년 검토 대상임.

* 자료 : 필리핀 중앙은행(BSP)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8671	6822	11983	5939	6210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2023년 필리핀의 대외직접투자 금액은 약 12억 달러이며, 2022년 약 3억달러 대비 약 306.1%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41억

달러에서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이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3351	3562	2251	308	1251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3년 한국기업의 필리핀 투자금액은 약 1억 달러로 신규 법인 수는 45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투자 금액과 신규 법인 수 모두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인 설립 기준으로는 12위, 전체 투자액 기준으로 35위를 기록했으며 신고건수와 투자 금액은 최근 3년 대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226	34	214,323	408	171,175
2022	294	84	289,508	462	173,427
2023	312	90	239,469	442	202,09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2022년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금액은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 되어 있으며 제조업 총 투자금액은 약 6,000만 달러이다. 제조업에 이어 부동산, 건설, 정보통신, 도매 및 소매,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순으로 투자금액을 기록했다. 2023년 한국의 필리핀 부동산 투자금액은 약 1,300만 달러로 전년 1,500만 달러 대비 13.3% 감소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13	17	107,161	204	85,587
광업	4	0	693	4	384
제조업	24	2	42,548	83	35,59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98	2	98
건설업	13	5	14,901	13	16,001
도매 및 소매업	3	1	2,955	14	2,867
운수 및 창고업	2	1	219	3	227
숙박 및 음식점업	3	1	3,388	7	1,600
정보통신업	4	0	859	2	459
부동산업	40	5	35,261	55	23,5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820	3	8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0	1,408	11	1,084
교육 서비스업	3	0	4,012	7	2,92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47	42	144,753	231	86,712
광업	5	2	537	5	271
제조업	51	10	82,381	86	46,54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017	1	1,017
건설업	12	3	2,442	12	1,208
도매 및 소매업	6	3	11,169	15	10,672
운수 및 창고업	6	0	348	5	148
숙박 및 음식점업	2	0	1,050	11	721
정보통신업	8	9	1,673	10	1,986
금융 및 보험업	1	0	10,379	0	0
부동산업	30	6	20,520	55	15,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4	6,330	10	4,57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5	1	2,188	7	2,411
교육 서비스업	3	1	4,200	7	1,613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3	1	123	2	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3	2	398	5	37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56	45	119,734	221	101,046
농업, 임업 및 어업	3	1	736	2	734
광업	1	1	294	6	274
제조업	41	11	62,994	80	59,767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1	1	104	2	103
건설업	12	2	6,537	10	6,445
도매 및 소매업	19	8	5,650	22	5,310
운수 및 창고업	10	2	646	7	544
숙박 및 음식점업	7	2	1,973	12	980
정보통신업	11	5	6,367	12	6,407
부동산업	23	2	22,214	35	12,8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3	880	4	64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6	1	1,769	6	1,223
교육 서비스업	5	1	6,412	12	3,182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1	5	3,159	11	2,63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CJ대한통운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운수창고업
취급분야	화물, 운송
모기업명	CJ대한통운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기기
모기업명	삼성전자

○ 대상리코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식료품
모기업명	대상주식회사

○ DL이앤씨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대림

○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철강, 비철, 화학, 곡물 제품
모기업명	포스코

○ KEB하나은행

진출연도	198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KEB하나은행

○ PSMP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전자
모기업명	PSMC

○ 한전일리한㈜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발전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아모레퍼시픽

진출연도	2018
------	------

진출형태	지사
업종	화장품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주식회사, 비주식회사, 개인기업이 모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일체의 법률행위에 있어 필리핀 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하면 해당법인을 필리핀 기업으로 인정하나,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기업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전체 투자유치 기관 간 중복 등록이 가능(단, 인센티브의 중복 수혜 불가능)하지만, 지사(Branch)의 경우에는 BOI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PEZA, CDC, SBMA에는 등록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최고 8년까지 연장 가능하기도 하나 수혜 가능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투자진출 전에 해당 투자유치 기관에 세부 사업계획을 첨부해 공식적인 문의가 필수적이다.

지사

지사는 외국기업의 현지사무소로 모든 법률행위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형태이다. 즉,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 지사의 경우 한국의 본사까지 그 책임 소재가 미치게 된다. 지사의 경우도 외국인 지분소유가 40%를 초과하는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으로 간주돼, 설립 시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초기 자본금이 요구된다.

필리핀 내 지사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SEC 등록

○ 구비 서류

- Application Form
- Name Verification Slip
- Authenticated copy of the Board Resolution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branch/representative office in the Philippines; designating the resident agent to whom summons and other legal processes may be served to the foreign corporation; and stipulating that in the absence of such agent or upon cessation of its operation in the Philippines, any summons or legal processes may be served to SEC as if the same is made upon the corporation at its home office
- Financial Statements as of a date not exceeding one (1)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application, certified by an independent CPA of the home country and authenticated before the Philippine Consulate/Embassy
- Authenticated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an English translation if in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Proof of Inward Remittance, such as bank certificate
- Compliance with Financial Ratios
- Resident Agent's acceptance of appointment (not required if the resident agent is the signatory in the application form)
- For Representative Office and Branch Office of non-stock corporations: Affidavit signed by the resident agent stating that the applicant is solvent and in sound financial condition

2) 임대차 계약

3) (가능시) 투자유치기관 등록

4) 납세자 등록 (Tax ID 획득)

- 구비서류
 -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ertificate of Co-Partnership)" or "Licens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in case of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 Mayor's Permit or application; to be submitted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영업허가서 신청

- 구비서류
 - Locational Clearance Prior to Business Permit.
 -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f Leased, attach Mayor's Permit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wner/landlord as a Real Estate Lessor. If not,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with conformity of the Owner of the Building Administration. If owned,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or Tax Declaration(xerox copy).
 - Business Name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for sole proprietorship.
 -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rtnership approved by S.E.C.
 - Fire Certificate
 - Barangay Clearance
 - Public Liability Insurance
 - Residence Certificate A and B for single proprietorship, C and C1 in case of corporation or partnership for the current year
 - 기타 업종별 필요 구비서류

6) 갱신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각종 법률상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 용이, 현지 대관업무 용이 등)면에서는 법인이 다소 유리하며, 세무 및 경영원가 면에서는 지사가 다소 유리하다.

지사의 경우 PEZA 등록 시 지점이익송금세 면제(그러나 물류업 등 일부 업종은 비해당, 수출 제조업에만 면제 혜택 부여), 조세협약 체결 시 이자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제 인정, 필리핀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반면, 법인은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수출 제조업이 Branch 형태로 PEZA에 등록할 경우 지점이익송금세(Branch Profit Remittance Tax)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법인 등록 시 이익 배당금 송금 시 10~15% 배당세를 납부해야 하며, 동 조항만 고려할 때 PEZA 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사 형태 진출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현재 PEZA 등록기업 중 일부가 법인에서 지사로 진출형태를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장단점)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지사 여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모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 하여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사를 대신하여 현지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행위를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는 모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마케팅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으로 인하여 필리핀 내에서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은 불가능하며, 소득 창출 여부에 의해 일반 법인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게 된다.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의 가능 활동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모기업 소재국 시장의 정보 전파
- 비 전통적인 필리핀 상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활동
- 모기업과 현지 업체와의 연락 및 통신을 위한 사무소 활동
- 최근 필리핀에 배포된 상품에 대한 홍보

-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 기술적인 노하우 및 교육에 대한 전수 및 보조업무
- 모기업과 연계된 현지 회사 또는 예상 고객과의 원활한 업무와 연락 제공 업무
- 필리핀 금융상황 및 시장 조사에 대한 연구
- 현지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 장비 및 제품의 유지 보수 관련 문제 해결 업무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 설립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pplication Form
- Name Verification Slip
- (Authenticated) Submission of Board Resolution authorizing the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Philippines. The board resolution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 (Authenticated)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arent company certified by a CPA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 Authenticated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submitted to Philippin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Compliance with Financial Ratios
- Resident Agent for the representative office
- Acceptance of Resident Agent
- Affidavit of Resident Agent
- Certification of inward remittance for minimum paid-up capital to local bank. 30,000 USD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 설립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SEC 등록(신청일 기준 약 4주)

- 현지 연락 사무소 영문명 예약 및 확보
- 통합 이사회 결의서 작성: 현지 연락사무소 설치, 계좌 개설 은행 지정, 은행 인출권자 지정, Resident Agency 지정 등의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 작성
- 모기업의 전년도 및 최근 분기 재무제표 영문본
- 모기업 정관 영문본
- 신청서 작성
- Resident Agent 수락 및 진술서 확보
- 은행 계좌와 오픈 후 3만 불 예치: 송금 증명서 확보
- 재정비율준수 확인서
- SEC 등

2) BIR 신고(3~5일 소요)

- 한국의 국세청과 같은 세무관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획득한 후, 인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기타 등록신고(청약자본금 및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인지세 납부)

3) Mayor's Permit(약 1개월)

- 한국의 영업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흔히 Business Permit 이라고도 칭한다.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서 담당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허가를 득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은 관련 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 Barangay Clearance: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서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Certificate: 법인사무실 면적에 따른 소화기 갯수와 배치 검사
- Sanitary Clearance: 위생점검으로 법인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 이상유무 확인
- Insurance: 임차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대필리핀 투자의 강점은 풍부한 영어 구사 인적 자원, 인구 1억 이상의 내수 시장 보유, ASEAN 국가로 진출을 위한 관문 등이며 약점은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부족, 외국인투자 제한 등이 있다. GVC 재편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으로의 해외투자유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투자 관련 순위도 중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필리핀은 141개국 중 64위를 기록(2020년~2021년 코로나 19로 전 세계 순위 없음),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21에서는 95위를 기록했다(2020년과 동일). 또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안정적(Baa2), 부정적(BBB), 안정적(BBB+)으로 발표했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에 있어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원칙적으로는 전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예외 분야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존재하며, 100% 지분 소유 허용 업종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분야는 Foreign Investment Act에 의거, Negative List로 명시, 업종에 따라 0%~40% 이하 지분 허용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 프로젝트 입찰 참여 위한 합작투자/컨소시엄 필요: 외국기업이 필리핀 내 민자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단, 자금원이 해외(차관사업 등) 또는 MDB(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인 정부 발주공사, BOT 프로젝트인 경우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면허가 필요한데, 필리핀 내 건설업 관련 모든 면허는 DTI(통상산업부) 산하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PCAB)이 발급하고 있다. 필리핀 내 건설 면허는 Regular License와 Special License로 구분되며, Regular License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 발급하는 일반 면허이다. Special License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4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합작기업, 컨소시엄에 발급되며, BOT 방식의 민자 또는 차관 프로젝트 수행 시에만 발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건설면허 최고등급을 획득한 건설업체와 합작/컨소시엄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p> <p>3) 분쟁해결 현재 필리핀에는 대필리핀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창구나 중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필리핀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내 코리안데스크가 있으니 투자 관련 문의나 상담 등은 International Investments Promotions Service 부서 내 Korean Desk(TEL: +63-2-8897-6682)를 통해 받을 수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하고 이에 따른 배당을 행하는 기업형태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15인의 발기인, 5~15인의 이사가 필요하다. 발기인 및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발기인은 홀수로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100%, 40%)에 관계 없이 발기인(incorporator), 이사(Director, board)의 과반은 필리핀 거주자(Resident)여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 Resident의 판정 기준은 체류 일수에 상관없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은 지 1년 경과 시 거주자로 인정).

외국인 지분율(100%, 40%)에 관계없이 상법에 의거, Corporate Secretary는 필리핀 국적자여야 하며, Treasurer 경우 외국인지분 40% 이하인 경우 법인 등기 전에는 외국인이 가능하나, 등기 완료 후에는 필리핀 국적자로 교체해야 한다.

외국인지분 40% 초과 시 외국기업으로 간주, Treasurer는 외국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주식은 의결권이 없이 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preferred stock(우선주), capital stock(par value를 갖지 않고, 법인 채무에 책임 면제, 배당금 없음), 의결권이 없는 주식 등으로 분류된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수권자본금의 25% 이상), 납입자본금(청약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으로 구성되며, 주금납입증명서에는 필리핀 내 은행에 최소 5,000페소(약 105달러) 이상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이는 내국법인 간주 시 법적 최소자본금 요건이나,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약 62만5,000페소(약 1만 3,165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사의 교체,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 결정 관련 의결 정족수는 2/3 이상이며,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SEC 등록

○ 구비서류(필수)

- Name Verification Slip
-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 Treasurer's Affidavit
- Affidavit of incorporator or director undertaking to change corporate name(Not required if Articles of Incorporation has provision on this commitment)

○ 구비서류(추가)

- Endorsement/clearance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if applicable.
- For corporations with foreign equity: Proof of remittance by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corporate subscribers who want to register their investment with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
- For corporations with more than 40% foreign equity: SEC Form No. F-100
- For corporations with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or other economic zones application: Certificate of Authority or Endorsement from said government agencies
- Additional requirements based on kind of payment of subscription indicated hereunder

2) 임대차 계약

3) (가능시) 투자유치기관 등록

4) 납세자 등록 (Tax ID 획득)

○ 구비서류

-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ertificate of Co-Partnership) or "Licens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in case of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 Mayor's Permit or application - to be submitted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영업허가서 신청

○ 구비서류

- Locational Clearance Prior to Business Permit.
-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f Leased, attach Mayor's Permit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wner/landlord as a Real Estate Lessor. If not,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with conformity of the Owner of the Building Administration. If owned,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or Tax Declaration (xerox copy).
- Business Name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for sole proprietorship.
-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rtnership approved by S.E.C.
- Barangay Clearance
- Public Liability Insurance
- Residence Certificate A and B for single proprietorship, C and C1 in case of corporation or partnership for the current year
- 기타 업종별 필요 구비서류

유한책임회사

필리핀의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한국과는 달리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TI)에 등록된 자영업 등을 말하며 보편적 외국인투자 대상은 아니다. 외국인투자법 Negative List에 의거, 외국인은 소규모 소매업(투자규모 250만 달러 이하), 전문직(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농부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DTI에 등록해야 한다.

비주식회사

비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회사를 지칭한다. 즉,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고, 따라서 배당을 실시할 필요도 없는 기업이며, 비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교육, 자선, 종교, 문화 단체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 최소 1백만 페소(약 21065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현지법인-비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SEC 등록

- o 기본 구비서류
 - Name verification slip
 -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 Affidavit of an incorporator or director undertaking to change corporate name
 - List of members, certified by the Corporate Secretary
 - List of contributors and amount contributed certified by the treasurer
(주: Items 3, 4, and 5 need not be submitted if already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 o 기타: 각 업종별 관할 부처 승인 서류

2) 임대차 계약

3) 투자유치기관 등록

4) 납세자 등록

- 구비서류
 -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ertificate of Co-Partnership) or "Licens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in case of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 Mayor's Permit or application; to be submitted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영업허가서 신청

- 구비서류
 - Locational Clearance Prior to Business Permit.
 -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f Leased, attach Mayor's Permit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wner/landlord as a Real Estate Lessor. If not,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with conformity of the Owner of the Building Administration. If owned,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or Tax Declaration (xerox copy).
 - Business Name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for sole proprietorship.
 -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rtnership approved by S.E.C.
 - Fire Certificate
 - Barangay Clearance
 - Public Liability Insurance
 - Residence Certificate A and B for single proprietorship, C and C1 in case of corporation or partnership for the current year
 - 기타 업종별 필요 구비서류

6) 갱신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필브릿지(주) (한국회사)

전화번호	(63-2)8899-3096
주소	4th Floor, GA Yupangco Bldg., 339 Sen Gil Puyat Av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이메일	philbridge@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법인설립, 세무회계, 각종행정처리 관련 컨설팅 회사

○ 난스컨설팅 (한국회사)

전화번호	본사일반전화 (63-2)8723-1759
주소	Unit 1102 Atlanta Center Building, Annapolis St. Greenhills San Juan City,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nansphil.modoo.at
이메일	nansphil@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법인행정일체(신규설립, 청산, 증자, 주주변경), 세무회계, 은퇴비자, 이민국 행정, 번역 및 공증 등 각종 행정처리 컨설팅회사 *본사 한국인 직통 0917-899-7982 / 서울지사 한국인직통 010-8361-1827 *http://nansphil.com, https://cafe.naver.com/nansphill
-----------	--

○ 진우회계세무 (한국회사)

전화번호	+63-2-7001-9542
주소	Unit 1906 One Park Drive, 11th Avenue corner 9th Avenue, Fort Bonifacio, Taguig, Metro Manila
홈페이지	(없음)
이메일	joh@jinu-consultin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필리핀인 회계사/변호사
비고	법인설립, 기장세무, 급여대행, 경영자문, 결산보고서, 3대보험 납부대행 한국인 대표/회계사 카톡아이디: jaehoonoh

○ M&M 컨설팅&라이프 (한국회사)

전화번호	(63-2)8519-3949
주소	Unit 1501, 15F,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홈페이지	http://www.mnmcl.com/
이메일	mnmccl@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세무회계 컨설팅사

○ SVBB Law Office

전화번호	(63-2)8891-1316~1319
주소	11th FL, Security Bank Center, 6776 Ayala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홈페이지	http://sapalovelez.com/
이메일	rhd@sapalovelez.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한국기업 담당 변호사: Atty. Romeo Duran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필리핀은 중앙은행(BSP)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가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외환관리를 하고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필리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공식인증은행(Authorized Agent Bank, AAB), 공식인증은행의 자회사/계열사 외환 법인(AAB-forex corps), 환전딜러(Foreign Exchange Dealer, FXD), 환전인(Money Changer, MC)을 통한 합법적인 외환 자금 조달을 허용한다.

공식인증은행(AAB) 또는 공식인증은행의 자회사/계열사 외환 법인(AAB-forex corps)의 환전은 2009년 개정된, Circular No. 645(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에 의해 관리되며, 환전딜러(FXD) 및 환전인(MC)에 의한 환전은 2005년 1월에 개정된 Circular No. 471에 의해 관리된다.

공식인증은행(AAB) 또는 공식인증은행의 자회사/계열사 외환 법인(AAB-forex corps)을 통한 환전 시, 개인은 최대 50만 달러, 기업은 100만 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BSP 신청서 작성이 요구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환전 시에는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환전딜러(FXD) 또는 환전인(MC)을 통한 개인사용 용도의 환전 시 1회에 1만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으며 BSP 신청서 작성이 요구된다. 개인고객당 한 달 최대 5만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필리핀 중앙은행 홈페이지(<http://www.bsp.gov.ph/>)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환 규제

현지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나면 이익잉여금, 배당수익, 자본회수금(철수 등) 송금이 가능하도록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해야 한다.

1) 투자유입

현지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나면 이익잉여금, 배당수익, 자본회수금(철수 등) 송금이 가능하도록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해야 한다. 필리핀은 법률로서 투자가에 대해 필리핀 투자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청산잔여금, 배당, 이자소득 포함)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만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로 하여금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하도록 하고 송금 시 각종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익금을 모기업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폐소를 외화로 환전해야 하며, 기업은 외화 구입 송금 시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ko Sentral ng Philipinas) 또는 지정은행(International Operations Department)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이 철수 등에 따른 자본 회수, 배당, 이익잉여금 등 수익의 송금을 위해 필요한 외환을 수권대리은행(AAB)이나 AAB-외환법인에서 조달해도 역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외국인투자 등록이 필요하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 건은 ① 필리핀 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② 폐소 표시 국채 투자, ③ 필리핀 상장기업 증권 투자, ④ 폐소 표시 단기금융상품 투자, ⑤ 90일 이상 만기 AAB 폐소 예치금 투자 등이다. BSP 등록이 완료되면 필리핀 정부는 등록된 기업에 Bangko Sentral Registration Document(BSRD)를 발급한다. 일단 BSRD가 발급되면 중앙은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금 시마다 동 등록서류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일반 은행에서도 송금할 수 있다.

2)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금, 현물과 관계없이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한다(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시 필요). 외국자본으로부터의 대부금은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중앙은행은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외국자본 차입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외국자본 차입신청서는 중앙은행이 사안별로 처리), 모든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은 외국자본 차입현황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3) 예금계좌

법인은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통상산업부(DTI)에 등록을 마쳐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는 외국인 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I-Card)을 취득한 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관련 계약이나 외국인 투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로열티, 임대료, 수수료, 배당금, 이익금 등이 거래 등이 불가하다.

4) 과실송금

필리핀 중앙은행(BSP) 또는 저축은행에 적법하게 등록된 투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자금송금이 허용되며, 현지은행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승인 없이 외환으로 전환한 투자수익을 매각 또는 송금할 수 있다. 과실송금은 필리핀중앙은행(BSP)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지분 투자의 경우 상업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 또는 상장증권투자의 경우 저축은행 또는 증권 중개인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미결제 투자분 또는 과실송금도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될 수 있으나, 당해 은행은 필리핀중앙은행(BSP)에 예치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세후 이자 수익을 포함한 최종적인 과실송금은 필리핀중앙은행(BSP)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D 1 = PHP 58.6 (24년 11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76.5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9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3
비고	<p>2024년 NCR 수도권 지역 최저임금 수준은 일일 기준 임업 종사자 또는 생산직의 경우 570페소, 사무직 또는 계약직의 경우 610페소로 인상되었다. 현지 임금의 경우 노동자 연합과 필리핀 고용노동부(DOLE) 등의 평가에 의해 인상안이 반영되고 있으나 매년 인상되는 임금의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아 현지에서 직원 고용 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월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민 또는 외국인을 채용하기보다 현지인 여러 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 <p>참고할 점은 필리핀에서는 월급 이외에 연말 보너스(13th month pay)가 있는데, 이는 필리핀 노동법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된 법정 보너스이다. 매년 12월 24일 전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한해서 연말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계산법은 '월급X근무 개월 수/12'이다.</p> <p>※ 임금수준 (지역별, 산업별 상이) - 대졸 사무직 초임 평균(\$): 433~520 - 고졸 생산직 초임 평균(\$): 347~433 - 최저 시급(\$): 1.2~1.4</p>				

<자료원 : National Wage and Productivity Commission, jobstreet,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정규직(Regular Employee)

서면, 구두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원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고용이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되거나 직원 채용 시점에 해당 업무 종결 시까지 고용을 인지하고 채용된 경우 또는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연속/비연속 상관없이)은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2) 비정규직(Casual Employee)

상기 정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된다. 즉 임시로 발생한 업무, 채용 시 근무기간이 근로자에게 명시된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연속/비연속 상관없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정규, 비정규직 구분과 관계없이 이들 직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직원의 권리와 혜택, 의무가 동등하게 부여된다.

3) 수습직원(Probationary Employee)

고용주가 직원 자격 검증을 위한 기간(trial period)을 갖기 원하는 경우 수습직원으로 분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무 시작일

로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수습직원은 해당 업무가 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채용이 가능하며, 수습 기간도 한정된다(해당 업무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 이하로 제한).

수습직원은 합당한 사유에 의해 또는 정규직 직원이 갖춰야 할 자격에 미달한 경우(단, 해당 자격 기준은 반드시 수습직원 채용 시 고용주가 수습직원에게 알려야만 적용이 가능하다.)에만 해고될 수 있다. 수습 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직원이 직장에 있는 시간 및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뜻한다. 근무시간 중의 짧은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의 근로시간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의 근무시간은 8시간/일, 사무직은 40시간/주, 생산직은 48시간/주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III, Title I, Chapter I, Article 83, 84).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 및 휴일에도 사업상 운영 가능하나, 고용주는 직원이 6일 연속 근무 시 하루(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Section 2, Rule I, Book III.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에서 제시한 직원 제외).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 휴일을 노사 단체 협약 및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한다.

-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III, Rule III, Section 2, 3
-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III, Title I, Chapter I, Article 91

종교적 이유로 직원이 주중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단, 직원은 희망 휴일 최소 7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휴일에 대한 직원 선택이 불가피하게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고용주 입장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직원이 희망한 요일에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III, Rule III, Section 4).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은 주 5일 근무하며, 일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이다. 단 응급상황일 경우, 주 6일, 또는 주 48시간 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본봉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연구원, 준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조산원, 간병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III, Title I, Chapter I, Article 83).

휴가

필리핀의 휴가는 크게 근속휴가, 출산휴가, 기타 유,무급 휴가로 구분되며, 세부 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근속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단, 직원 수가 10인 이하(regularly employing 기준)이거나 노동부 장관에 의해 경영,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인정받은 기업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III, Title I, Chapter III, Article 95-(a)(b)).

2) 출산 휴가

2019년 3월 1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출산휴가 개정안(Republic Act No. 11210)에 따르면,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행

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105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미리 지급한 후 SSS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산모가 원할 경우 30일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된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가 신청 시 미리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출산 휴가는 고용주 승인 아래 휴가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유급 출산 휴가 동안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포함해 4회로 제한된다.

고용주가 SSS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A. Maternity Leave Benefit).

남성 근로자도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기존 7일의 유급휴가에서 배우자의 105일 출산휴가 중 7일을 양도받아 최대 14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된다. 이를 악용하거나 여기는 개인 및 법인, 제후사, 협회 등의 조직은 최소 20,000페소에서 최대 200,000페소 이상의 벌금 또는 최소 6년에서 최대 1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사장, 부사장, 전문 경영인 등 이에 관한 책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Act No.8187 Paternity Leave Benefit).

미혼모의 경우 기본 105일과 더불어, 필요 시 추가될 수 있는 30일간의 연장 기간 또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 기타 휴가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여성이 육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추가적인 안정기가 필요할 경우 10일의 무급휴가가 제공된다. (Anti-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Act of 2004, RA 9262).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여성 근로자가 부인병 관련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간의 특별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Magna Carta for Wamen, Republic Act No. 9710).

해고

정규직원에게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원의 해고가 불가능하다. 만약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은 급여, 직위, 복지, 수당 등 모든 혜택이 해고 전 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며,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 급여, 복지, 수당(full back wage)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직위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직위와 동등한 직위로 복직되어야 한다.

수습직원(Probationary Worker)의 해고 시에도 적법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 당초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된다. 이 경우에도 해고 전 적당한 기간을 두고 문서로서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 행위에 의한 직원 고용 시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유로든 해고 시에는 사전 해고 통보 등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래(적법한 해고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 해고가 가능하다.

-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 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관리자)의 업무와 관련 합법적 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willful disobedience) 경우
- 중대하고 상습적인 근무 태만(gross and habitual neglect)의 경우
- 직원이 사기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약속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 직원이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 또는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VI, Title I, Article 282)

위와 같은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령 받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

퇴직금

1) 해고 시 퇴직금

합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동법에 규정한 퇴직금을 수령 받지 못하나, 노사단체협약 또는 해당 직원과 고용주 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자발적으로도 퇴직금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급여는 가장 최근 급여가 된다. 단,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감액할 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 삭감 전 급여가 기준 급여가 되며, 어떤 경우도 퇴직금은 직원 1개월분 급여보다는 많아야 한다.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복직할 직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자동 해고가 되는 경우, 퇴직금은 1개월 치 급여 또는 '근속연수 x 1개월의 급여' 중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회사의 폐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긴축경영(Retrenchment to Prevent Loss) 상황이나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해고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 x 0.5개월'의 급여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2) 정년퇴직 시 퇴직금

모든 직원은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할 수 있다. 노사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은 60세가 되며, 65세에 이르면 강제 퇴직해야 한다.

직원 퇴직 시 고용주는 현행법 또는 노사협약 또는 관련 계약에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퇴직금은 1개월의 급여보다 높아야 한다. 정년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근무한 정년 퇴직자는 '일 급여 x 22.5 x 근속무연수'를 정년퇴직금(retirement pay)으로 받을 수 있다.

지하광산 노동자는 50세에 정년퇴직할 수 있고, 60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정년퇴직이 이뤄져야 하며, 5년 이상 근무 시 상기 퇴직금 수령 권한이 부여된다.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농업 관련 기업은 상기 정년퇴직 관련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 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한다.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Phil Health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Phil Health 또는 지정은행에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자영업자

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Phil Health에 등록해 Phil 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Phil Health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월 10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사직 시 30일 내에 Remittance Report(RF-1)를 작성,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에 변경사항 발생하는 경우에도 Phil Health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 참고법령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
- (Th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R.A. 7875)

국민연금

필리핀은 근로자의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SSS)을 운영 중이며, SSS는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하며, 단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미만 가사 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자(OFW)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외 SSS 가입 면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SSS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 외국 선사에 고용돼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 시
-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 시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준하는 은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즉시 SSS가 발효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30일 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SS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 SSS Form R-1A 다운: https://www.sss.gov.ph/sss/DownloadContent?fileName=SSSForms_ER_Registration.pdf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해당 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분담금 직접 납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 R1A,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Pag IBIG

필리핀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드를 운영 중이며, 펀드 가입 시 저축,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Pag-IBIG 펀드 필수 가입 대상자

-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의무가입 대상자
- 일반근로자, OFW,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 Pag-IBIG 선택적 가입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필리핀 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시작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Barangay 직원 등)
-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에게 고용된 직원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 직원 채용시도 역시 30일 내에 Pag-IBIG에 등록 시켜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영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 자동등록 또는 변경된 정관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필리핀 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납부를 했었으나 외국인은 실질적인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부로 더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내국법인(Corporation):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필리핀 법에 의거 필리핀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거주외국지사(Resident Foreign Corporation, Branch): 필리핀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 외국기업(Non-resident Corporation):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매출에 대해 과세
- 소득세율은 30%, 단 로열티, 이자, 배당 등 기타 영업 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비영리 교육 및 기타 비영리 조직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외화예치기관(Foreign Currency Deposit Units) 및 Offshore 은행(offshore banking units)과 비거주자 간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외화예치 기관 및 Offshore은행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 과세한다.
- 2021년 4월 11일 발효한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 법에 따르면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는 '21년 7월 1일자로 기존 30%에서 25%로 인하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 거주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다. 과세금액 500만 페소 이상은 25%, 과세금액 500만 페소 이하, 부동산 포함 자산 총액이 1억 페소 이하인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20%가 적용된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교육 비용의 50%에 대해 과세소득의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 2025년 1월 발효 예정인 CREATE MORE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존 25%에서 20%로 인하되며, 특별법인소득세율(SCIT)과 비용 추가 공제(Enhanced Deduction) 인센티브 적용 기간이 최대 27년으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필리핀의 투자 환경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 투자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CREATE MORE법은 또한 법인세 인하 외에도 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 비용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 비용과 무역 박람회 및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공제 비율이 증가하며, 법인세 감면 기간(Income Tax Holiday)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개인소득세

필리핀 세법은 과세 대상 개인을 거주자(Resident Citizens, 필리핀 국내외 소득이 과세 대상), 비거주자(Nonresident Citizens, 필리핀 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s, 필리핀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 내 비즈니스 종사자(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거주 외국인과 동등하게 과세),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비종사자(필리핀 내 발생하는 소득 총액에 대해 과세)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은 내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내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종사자에게는 소득의 0~34%,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기존 대비 구간별로 감소되었다.

-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 면제
- 25만~40만 필리핀 페소 이하 : 25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15%
- 40만~80만 필리핀 페소 이하: 4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20%+22,500 필리핀 페소
- 80만~200만 필리핀 페소 이하: 8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25%+102,500 필리핀 페소
- 200만~800만 필리핀 페소 이하: 20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30%+402,500 필리핀 페소
- 800만 필리핀 페소 초과: 80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35%+2,202,500 필리핀 페소

부가가치세

필리핀의 부가가치세(VAT)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 및 유무형 자산의 거래/판매 시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적용분야가 나누어진다.

- 부가세 적용: 건설, 서비스 용역, 주식, 부동산 거래, 임차료, 창고서비스, 요식업, 전화 및 각종 유틸리티 요금, 금융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제품 수입 시)에 대해 12% 적용
- 부가세 미적용: 비식용 농림수산물, 비료, 종자, 사료 수입품, 천연가스, 석탄 및 관련 원료 수입, 엔진, 부품 수입, 5천 톤 이상 여객/화물선 수입 시 부가세 면제, 국제 항공 및 해운선사
- 외국 수출업체의 경우(일정요건 충족 필요), PEZA 등록 시 영세율(0%)을 적용한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CREATE MORE법은 부가가치세(VAT) 면세와 영세율(0%)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수출 기업 및 등록된 내수 기업의 프로젝트와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과 서비스가 해당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기존 CREATE법에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던 경비, 보안, 마케팅, 회계, 법률, 행정운영 등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 수출 기업의 경우 주요 사업과 관련된 수입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필리핀 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수 기업은 필리핀 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중간재, 운영 지원 서비스(법률, 회계, 경비 등), 마케팅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특정 품목의 국내 소비 또는 수입 시 부가세에 더해서 발생하며(Percentage Tax와 차이), 광물, 석유제품, 자동차, 주류, 담배, 요트,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세금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인 TRAIN법(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소득세, 양도세, 부동산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세제 개혁이 이루어졌다.

- 연료: 2020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LPG의 특별소비세는 각각 10페소, 6페소, 5페소, 3페소로 적용 시행 중이다.
- 담배: 1팩당 20~21년도는 37.50페소, 22~23년도는 40페소이며, 이후부터는 매년 4%씩 인상될 예정이다.
- 자동차: 자동차 금액에 따라 0~60만 페소 4%, 60만~100만 페소 10%, 100만~400만 페소 20%, 400만 페소 이상의 경우 5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특별소비세의 절반을 면제받으며, Pick-up 및 전기차의 경우 전면 면제받는다.
- 광물: 4%~6% 수준 적용 시행 중이다.
- 설탕세: caloric or non-caloric 감미료 첨가 제품은 리터당 6페소, 액상과당 또는 혼합물(high-fructose corn syrup or combination) 첨가제품은 리터당 12페소, 순수 코코넛 수액 및 스테비올(steviol) 배당체를 사용한 음료수에 대해서는 특소세 면제가 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47년 6월 20일 필리핀 특허청을 신설하였고, 1987년 2월 27일 특허·상표·기술이전국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7년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 이하 지식재산권법)이라 불리는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였으며 1998년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을 설립하였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특허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이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보호기간 만료 후 갱신이 불가능 점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이나 색상에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선이나 색상으로 구성된 구도 또는 입체 형상이 장식성,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권을 받아 보호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2회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이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실제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Use)와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필리핀은 제약 분야의 특허 관련 규정을 2008년 7월 4일 자로 개정하고, 2013년 3월 4일 저작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청의 조직 구성을 기존 6개에서 저작권국(Bureau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이 새로이 추가된 7개국 구성으로 개편되는 등 필리핀 내 저작권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2018년 12월 18일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인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2021년 4월 28일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의 가입서에 서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는 저작권법이 2021년 7월 28일 발효됐다. 필리핀은 자국 공연예술가들의 실연권 보호 수준을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의 청각 실연자 권리 보호를 넘어 영상 및 이미지 등의 시청각 실연자 권리 포함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을 결정했다.

2023년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출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49,832건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으며, 각각 산업 디자인 1,488건, 실용신안 1,847건, 특허 4,544건, 상표 출원 41,95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증가 수치는 비즈니스 상호 작용의 디지털화 및 지식재산청의 홍보 캠페인과 같은 적극적인 출원 지원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법인 철수(해산) 관련 법령

필리핀 회사법은 2019년 2월 20일에 새로 개정되었다. 비즈니스 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을 위해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획일화, 투명성 등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개정된 필리핀 회사법에 따른 법인의 해산은 크게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과 비자발적 해산(Involuntary Dissolution)으로 나뉘며, 자발적 해산은 채권자(Creditor)가 영향을 받는 해산과 영향을 받지 않는 해산으로 나누어진다.

○ 채권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발적 해산

- 법인의 해산이 채권자의 이익 및 권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시 해산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했을 경우,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이하 내용을 포함한 해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 (b) the form, manner, and time when the notices were given
- (c) names of the stockholders and directors or members and trustees who approved the dissolution
- (d) the date, place, and time of the meeting in which the vote was made
- (e) details of publication

- 또한, 법인은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에 이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법인의 Secretary가 서명한 과반수의 이사회 멤버의 승인을 받은 해산 결의서 사본
- (2) 해산을 공고한 법인 소재지 신문 1종
- (3) (필요시) 규제 기관의 추천서

- 신청 15일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는 해산을 승인하고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발행한다.
 - * 해산은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 채권자가 영향을 받는 자발적 해산

- 법인의 해산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에 진정서를 제출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진정서는 과반수의 법인 이사 또는 업무 경영권을 가진 다른 임원에 의해 서명되고, 회장이나 총무부장 또는 이사회 중 한 사람에 의해 증명되며, 모든 요구 사항이 공표된다.

- 법인의 해산은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표 또는, 투표 미팅 시 이사회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시 진행 된다.

- 진정서는 이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 (b) the form, manner, and time when the notices were given
- (c) the date, place, and time of the meeting in which the vote was made

- 또한, 법인은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에 이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법인의 Secretary가 서명한 과반수의 이사회 멤버의 승인을 받은 해산 결의서 사본
- (2) 채권자(Creditor) 명단

- 진정서 및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는 이의신청기간을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내로 지정하여 공표 하며, 법인은 해산 명령을 3주간 일주일에 최소 한번, 법인 소재지 신문 1종에 개시해야 한다.

-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는 법인 해산 판결을 내린다.

2) 법인 해산 절차

○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2~3주)

- 회사 폐업 공지, 세금증명서 발급(국세청), 회사 등록증, 세금증명서 발급

- 노동부
 - 노동부 관련 서류 제출
 - 해산 관련 주주총회 결의서 및 이사회 결의서 작성 제출
- 국세청(4~5주)
 - 회사 폐업 서류(Form 1905) 등록, 국세청 발급 폐업 관련 서류 등록(각종 미납 세금, 재무제표 등 총 7개 부서를 거쳐서 서명해야 함)
- 시청(2~3주)
 - 세금 관련 Business Permit and Licensing Office(BPLO), 원본영수증(OR) 등록, 자산 증빙 세금 증명서, 상기 사항 등록 및 시청 요구 문서 등록, 회사 조사(Inspection), 3대 보험 말소 증명서
- 신문 공고
 - 3주간 신문에 채권자 공고
 - * 총 소요기간: 약 5~7개월 이상(Tax Clearance 의 경우 세무조사에 준하는 과정이 필요함)
- 기타
 - 기업등록 관리위원회(SEC), 국세청(BIR), 시청(City Hall) 서류 심사 후 추가 증빙 서류 및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BIR Tax Clearance 발급 시 해당 RDO 뿐 아니라, 해당 Regional Revenue 의 미해결 세무 이슈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해야 Tax Clearance 발급이 가능함.

3) 법인 청산 절차 및 관련 법령

필리핀 회사법(The Corporation Code, TITLE XIV, Section 122)에 의거, 법인의 청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법인의 청산
 - 청산의 사유 발생 시,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 청산을 결정한다. 청산의 사유란 경영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작투자 상대방의 계약 위반 및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의 명령 혹은 판결 등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사유에 부합해야 한다. 청산 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 신청 전, 신중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한다.
 - 해산 결정 후, 기업은 기업등록 및 관리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청산을 신고하여 청산의 사유, 청산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제출한다.
 - 청산 신청이 끝나면 청산 기업은 청산 신청 후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 원인, 청산 개시 일자 등을 기업 주관 당국, 세무기관, 계좌개설 은행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 청산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기업의 관련 책임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 장부, 재산 목록, 채권자와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대차대조표, 자산 리스트, 청산 방법, 자산 평가와 평가근거를 기업 의결기구 확인을 거쳐 SEC에 등록해야 한다.
 - 청산 시, 직원은 자동 해고되거나 미지급 급여 및 잔여 지급액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시된다.
 - 청산위원회의 구성 직후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청산 법인 소재지 신문 1종에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 청산 완료 후, SEC에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등록 말소를 진행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LGU)에 지방세 납부와 더불어, 청산결의 이사회결의서와 영업허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필리핀은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하락한 5.5% 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주요 국제 금융 기구들은 2024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을 공공 투자 가속화와 필리핀 수출에 대한 외부 수요 개선에 힘입어 6%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필리핀은 상품 무역 적자 축소와 서비스 및 이차 소득 부문에서의 순수입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주요 소득 부문에서 순수입이 감소한 것이 이러한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하였다. 2022년 필리핀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 GDP 4.5%에 해당하는 183억 달러에 달했으나, 2023년 112억 달러까지 감소하며 완화되었고 이는 전체 GDP의 2.6%에 해당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의 송금 증가와 국내외 경제 환경의 호전을 통해 2024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3%, 즉 61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필리핀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2023년 현재까지 총 475bp의 기준 금리를 인상 하였으며 2023년 6.5%를 기록했으며 2024년 4분기 기준 금리는 6.0%로 전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다.

필리핀은 글로벌 이슈와 수입 의존도 높은 식품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CEP 비준과 식품 수입 규제 완화, 관세 감소 등 물가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필리핀 현지 인구는 1억 1,887만 명이며,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그 중 중산층 인구는 약 28.8에 달한다. 필리핀은 15~34세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4,150달러(US\$)를 기록하며 2023년 경제 회복에 따른 3,910달러(US\$) 대비 6.1% 증가했다.

<자료원 : Statist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소비 성향

필리핀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 대비 성능과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주로 합리적인 가격의 저가제품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고소득층은 고급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Mall of Asia를 비롯해 대형 쇼핑몰들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폭넓게 들어서 있다.

또한, 필리핀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다수의 소비재 및 공산품이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Overseas Filipino Workers Remittance: OFW Remittance)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

1) 서비스·소비 중심의 시장 구조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에도 서비스산업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한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서비스업에서는 관광, BPO, 건설 등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은 전자, 반도체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 외 농업, 의료, 건설, 소매유통이 발달하여 있으며, 2020년 기준 서비스

산업 비중 61.42%, 민간소비가 GDP의 78% 차지 차지할 정도로 소비 위주의 경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전자부품(반도체)을 비롯한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및 운송장비, 기타 공산품 등이며, 반도체, 전자 등은 인텔, TI, Sanyo, 삼성전자 등 다국적기업의 현지공장이 대부분이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메트로 마닐라 및 소수 거점도시 상권 집중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를 중심으로 한 루존(Luzon) 섬 남부와 일부 거점 도시에 상권이 집중돼 있다. 이외에 필리핀의 주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세부(Visayas섬), 다바오(Mindanao섬), Subic, Clark(Luzon섬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초대형 쇼핑몰이 발달하였으며 최대 유통업체인 SM, Robinsons, Rustan's 등이 운영하는 미국식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화교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반도체, 전자분야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금액이 필리핀 전체 수출의 65%를 넘나들 정도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필리핀도 유통, 전자분야 중심의 화교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다른 주요 산업으로 독점 및 과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 필리핀에 소재하는 국제기구(ADB), 외국차관(일본, EU, 미국, 한국 등)에 의존하는 인프라 개발이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4) 부의 편중과 소비 양극화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소비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복건성 출신의 화교가 필리핀 상권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위 3~5%의 상위층은 잦은 해외여행과 명품을 선호하는 반면, 인구의 17%는 빈곤층으로 하루 2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빈곤퇴치가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중산층이 미약해 소비시장도 고가시장(초대형 현대식 쇼핑몰)과 저가시장(재래시장)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다.

5)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인 이른바 공급자 우위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년 기준 2019년 수입 \$1,129억/무역적자 \$425억에서 20년 수입 \$908억/무역적자 \$269억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가격 결정, 시장경쟁 등에 이들 업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1년 외국인투자제한조치가 해제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25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기존과는 다르게 법인 설립이나 현지 진출 위한 절차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다. 유통산업은 오래전 화교자본이 장악하였고 필리핀 자국민의 자본은 형성되지 못해, 결국 이 외국인의 소매업 투자제한 조치가 역으로 필리핀시장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드는 주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소매업 투자 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외국인 기업들의 납입 자본금 요구치 완화등 소매업 부분에서 외국인 소매업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류드라마, K-POP 등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류 기반의 소비제품 사용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휴대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류와 K-콘텐츠가 시장 내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 식품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하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로는 에뛰드,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이 있으며, 식품브랜드로는 뚜레쥬르, BBQ치킨, 교촌치킨, 설빙 등이 마스터 프랜

차이즈(Master Franchise) 형태로 진출해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제품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뛰어나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많은 필리핀 유명 브랜드들이 한국 연예인들을 브랜드 앰버서더 또는 홍보모델로 차용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제품 소개

바이어와 상담 시 국산제품의 첨단기술을 막연히 설명하는 하는 것보다는 바이어가 설명하는 현지시장 동향과 유지하고 있는 판로를 감안해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바이어를 만날 때 제품 샘플과 카탈로그는 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 바이어는 특성상 거절 또는 싫다는 표현을 잘하지 못해 상담 시 제품에 대한 좋은 평을 하더라도 나중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구매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차후에라도 다른 기회에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독촉을 해서 아예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필리핀의 수입은 대략 50% 정도가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에이전트나 유통업체들은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상품이 필리핀에 공급되는 경로가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협상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통상 대리점은 해당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품 또는 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다품종 소량). 유통업체들은 재고를 보유하기를 극히 꺼린다. 구매자의 주문이 있을 때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므로 소량으로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화학공업 및 산업용 제품도 가격이 중요

중화학공업 제품이나 산업용 제품 등의 경우 수입상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중요한 구매조건이 된다.

4) 화교계 상인들

현지 상거래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계 상인들은 해외 거래선 구축 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계와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화교계 상인들은 필리핀 상거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교계 기업문화의 특징은 가족경영으로 회사 내 기업주들이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필리핀 문화 역시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 가족기업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취급 품목/업종을 넓혀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리핀 바이어를 만났을 때 취급 제품/업종이 다소 혹은 많이 상이하면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업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좀 더 대화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이 사세 확장을 위해 취급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필리핀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시장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만을 장점으로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는 다소 쉽지 않으며, 바이어 및 주변 가족들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시장 특성상 주요 산업/사업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개인 컨설턴트 혹은 업체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넥타이가 정장으로 통용된다. 정장 상의는 입지 않아도 무방하나 건물 내에서는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어 추울 수 있으므로 호텔 등 실내에서 종일 상담하는 경우 양복 상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의 경우, 필리핀 전통의상인 바롱(Barong)을 입고 현지 바이어를 만나면 편안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다. 바롱의 경우 평균적으로 2~8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으며 LAZADA나 Shopee와 같은 필리핀 온라인 쇼핑업체나 필리핀 백화점 및 Kultura와 같은 전통제품 유통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인사

영어 인사도 괜찮지만, 친밀감 형성을 위해 따갈로그(현지어)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간에 언어 습득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간단한 인사 정도를 익히면 무난하다. 상담자의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상담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친한 여성들끼리는 서로 가벼운 포옹을 하며 양 볼을 가볍게 대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필리핀 전통에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로, 아랫사람이 웃어른의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는 제스처를 하기도 한다. 이는 마노 뽀(Mano Po)라고 불린다. 이는 비즈니스 미팅 시 직급이 높은 상대방에게 하는 인사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친근하고도 정중한 인사법이다. 대화 시 문장 끝에 Po(뽀)를 붙이면 정중한 표현이 된다. 필리핀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대화할 시에도 끝에 Po(뽀)를 붙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면 현지인들과 더욱 친근감 있게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Thank you 또는 Salamat po(살라맛 뽀) 대신 Thank you po(뽀)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인,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소개 또는 인사를 건넬 때에는 Mister (Mr.) 또는 Mrs. 나 Miss (Ms.) 와 함께 성을 부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대 남성의 이름이 John Pangilinan일 경우, Mr. Pangilinan(미스터 팡일리난)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상대 여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를 때에는 일단 Miss(Ms.)라고 부르고 상대가 Mrs. 라고 불러달라 요청하지 않으면 기혼 여부에 상관없이 Ms.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좋다. 상대 여성의 이름이 Jane Aquino일 경우, 우선 Ms. Aquino라고 불러야 한다. 필리핀은 계층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사회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에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가 의사 또는 변호사 등의 경우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Doctor Aquino(아키노 의사), Attorney Rodriguez(로드리게즈 변호사), Secretary de Ocampo(데 오캠포 장관) 등의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가 Nickname(별칭) 또는 First name(이름)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름 대신 성을 부르거나 정중한 호칭인 Sir 또는 Ma'am을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선물

신뢰관계가 구축되기도 전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뇌물로 인식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 전통차, 화장품, 인삼 관련 제품, 전통 기념품 등 가격이 높지 않으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선물이 무난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에는 주요 거래처 또는 관계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무실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경비, 신문배달원 등 평소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선물을 주는 경우, 쇼핑백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포장용 봉투를 한 눈에 알기 어렵게 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선물을 받을 경우 바로 열어보는 것보다 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예의이다.

4) 약속

필리핀에서는 미팅 약속을 미팅 한 달 전에 잡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팅 2~3일 전에 미리 전화해 미팅 일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필리핀 수도권 마닐라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 이동 시 소요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실제로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는 Filipino Time이라는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약속시간에 30분 정도 늦는 일도 자주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맨들 대부분은 약속시간 준수

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교통체증 포함)이 있지 않은 이상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그러므로 거래처 또는 관계자와 미팅 약속이 있을 때에는 약속 시간에 맞춰 장소에 도착하되, 상대방이 늦더라도 심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교통체증은 주중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에 가장 심하기 때문에 화, 수, 목요일 중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필리핀의 근무 시간은 보통 8~9시에서 17~18시이며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 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운다거나 특히 높은 직책일수록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1~2시간 전후로 여유를 두고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과의 저녁식사를 중시하고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음주문화처럼 저녁식사에 초대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상담 스케줄을 영업시간(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에 만들어 진행하는 편이 좋다.

필리핀의 경우 통상 4월(부활절), 12월(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에는 수입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 결정권을 지닌 기업주들이 일주일 가량으로 휴가를 즐기기에 때문에 상담이 어려운 편이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Lazada Philippines

사이트 주소	lazada.com.ph
개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도 진출한 필리핀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인 Lazada는 소매업체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백화점이자 시장이다. 2011년 Rocket Internet이 설립한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는 2016년 라자다와 동남아 사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Lazada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US\$ 1,000,000,000, 고용인원은 14,692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필리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품목들과 많은 할인 혜택 및 특별 세일 기간 등 다양한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번개딜(Lightning Deal)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필리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온라인 쇼핑몰로 기존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한후 LAZADA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Shopee Philippines

사이트 주소	shopee.ph
개요	"모바일 우선"이라는 필리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hopee는 주로 모바일유저들을 위한 온라인 상점이다.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플랫폼인 Shopee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대만에서도 운영중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Shopee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US\$ 20,000,000, 고용인원은 10,0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LAZADA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품목들과 많은 할인 혜택 및 특별 세일 기간 등 다양한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번개딜(Lightning Deal)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Shopee는 LAZADA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보다 저렴하고 많은 품목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LAZADA에서 찾기 힘든 제품들을 원하는 고객들을 적극 유치 하고 있다.

◦ Zalora Philippines

사이트 주소	zalora.com.ph
개요	Zalora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패션 전문 전자 상거래 사이트다. 패션 브랜드가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Zalora는 Rocket Internet에 의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 Zalora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홍콩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에 출시되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Zalora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US\$ 40,000,000, 고용인원은 2,51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운동기구, 건강,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필리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패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품목들과 많은 할인 혜택 및 특별 세일 기간 등 다양한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펜데믹으로 인한 재택생활이 길어지면서 의류 외에도 인테리어용 소품이나 미용기기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명 브랜드들을 런칭하고 있다.

o Carousell Philippines

사이트 주소	carousell.ph
개요	원래 모바일 플랫폼이었던 Carousell은 웹 쇼핑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브랜드 또는 개인 누구나 휴대폰으로 제품 사진을 찍고 Carousell 플랫폼을 통해 쉽게 판매하고 판매자와 채팅 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Carousell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및 홍콩에서도 운영중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Carousell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US\$ 40,000,000, 고용인원은 201~5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와 주택, 차량등 전반적인 소비자간 거래가 가능하다.
특징	필리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품목들과 많은 판매자들이 있으며 개인 대 개인 판매 또한 함께 주선 해주기에 필리핀에서 가장 큰 중고 플랫폼 중 하나이다. 최근 중고거래외에도 부동산 등 토지 임대 및 매매의 범위까지 운영 품목을 확대 하고 있다.

o e-Bay Philippines

사이트 주소	ebay.ph
개요	미국과 세계에서 전자 상거래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eBay의 필리핀 현지 사이트는 원래 소비자 대 소비자 판매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후로 B2C 제품 및 특별 거래로 확장한 eBay 필리핀은 모든 일반 제품 범주를 수용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e-Bay Philippines는 2004년에 런칭 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US\$ 2,670,000,000, 고용인원은 12,700명가량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품목들과 많은 할인 혜택 및 특별 세일 기간 등 다양한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으로써 입지가 작기 때문에 지원행사나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A사

차량용 전기배선장치와 와이어 하네스를 제조하는 A사는 본래 중국 전역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임금 및 사회보험 등 노무비용의 인상으로 필리핀으로 이전했다. A사는 필리핀으로 결정하기 전에 베트남도 고려 했으나 언어 문제(필리핀인의 영어구사 능력)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안정적인 점 등으로 최종 필리핀으로 이전하게 됐다.

특히나 필리핀은 기계제조업 분야에 취약해 해당 분야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A사가 진출하기에 조건이 좋았다, A사는 필리핀 경제특구에 진출, 생산하는 제품의 70%를 수출에 의존해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에도 전체 소득의 5%만 납부하는 등 세금감면과 같은 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중국 공장과 필리핀의 신규공장을 동시에 운영, 생산 기지를 이원화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2) B사

한국계 진출 건설사인 B사는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른 건설사와 함께 수주해 필리핀에 진출했다. B사의 건설팀은 이미 필리핀 현지에 법인을 개설해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사를 지원할 플랜트설계팀은 인도와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 상태로, 해외 각국에서 동사가 수주한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B사는 인도 법인 설계 기사들의 임금 상승 문제로 대안을 모색하던 중 필리핀 기사들의 업무 숙련도, 임금, 언어 소통 면에서 인도 법인과 비교해 손색이 없음을 확인하고 필리핀에 설계법인을 계획하게 됐다.

그러나 필리핀 외국인투자법은 부속서를 통해 외국인 지분 제한 분야를 0~60%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엔지니어링)는 외국인 지분 0%(지분소유금지) 분야에 해당한다. B사는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로펌 등에 수차례 의뢰를 했으나 법적 제약으로 힘들다는 답변을 받거나 더미(현지인 주주)를 세워 진출하라는 조언을 먼저 받았다. 다만 이런 경우, 필리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Anti-Dummy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최악의 경우 법인의 지분이 현지 주주들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에 등록할 때 작성하는 기업 정관을 변경해 등록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로 등록하려고 하면 외국인의 명의 또는 지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지만 법인의 정관을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턴트 법인' 또는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법인'으로 등록 시 법인등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PO는 외국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투자유치기관에 등록해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B사는 KOTRA 마닐라 무역관의 조언에 따라 2014년 법인 설립과 필리핀의 최대 투자유치기관인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 등록까지 완료했다. 이는 합법적 방법을 사용해 국내 기업 중 필리핀 내 최초 건축설계 분야 법인 설립에 성공한 사례로, 이를 통해 건축설계 분야의 필리핀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필리핀에서 법인설립 등 해외 투자를 진행할 시 진출 목적을 우선하는 것보다 현지 법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점이 더미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지인을 더미로 두고 사업을 했을 때 프로세스가 빠르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할 수 있지만,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업체 전체가 현지인 주주들에게 넘어갈 위험도 크다. 위 사례와 같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시 현지 법률 및 사례를 충분히 조사 후 진행해야 한다.

3) H사

H사는 동남아 시장의 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량 확대, 주요 거래처인 중국 및 호주로 원활한 제품 납품을 위해 동남아 시장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고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후보군으로 지정하여 진출 장벽을 확인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필리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진출 장벽이 있어 H사는 최종적으로 필리핀을 채택했다.

H사는 한국의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해 동남아 시장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고려했다. 2023년 6월 부터 동남아의 투자 환경을 조사한 H사는 동남아 시장의 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량 확대와 주요 거래처인 중국 및 호주의 제품 납품을 위해 필리핀으로 진출을 확정하며 마닐라무역관으로 현지 진출 지원을 요청했다. 마닐라무역관은 H사의 필리핀 생산공장 이전을 위해 필리핀의 주요 경제특구인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수빅만자유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로의 입주 절차 및 요건 등을 안내하며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등을 상담했다. 지속적인 상담 지원과 마닐라무역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특구 담당자 연결 및 현지 제조공장 진출기업과의 인터뷰 주선 등을 지원했다.

H사는 마닐라무역관에서 제공한 투자 자료를 참고하여 필리핀 경제특구와 미팅을 진행, 이후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탐색 및 입주 혜택들을 참고하여 수빅만자유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로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리핀 진출 제조 기업 T사와 인터뷰를 하며 법인설립 및 공장 이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받았다.

나. 실패사례

1) J사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현지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국가(한국을 비롯한 22개국)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통해 돼지고기를 비롯한 가공품들의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 유입을 막기 위한 세관 통제 강화로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한 ASF확산을 막기 위해 항구, 공항 등에서 수하물 통제 작업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농무부 축산 산업국(DA-BAI)의 엄격한 위생 및 검역 증명을 통과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 J사의 경우 국제 표준을 비롯한 타국가로의 제품 수출이 가능 했으나 현지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은 엄격한 검역 인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보다 높은 단계의 위생 및 품질 요구, 수입되는 육류 제품은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NMIS)에 등록을 통해 인증 완료된 제품만 수입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두테르테 前행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판매규제 완화에도 엄격한 수입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돼지고기 수입 규제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부족하여 필리핀 정부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수입 요건 및 검역 규제로 국제 표준을 맞춘 제품이어도 필리핀 검역 표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J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돼지고기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 '22년 10월에 한국에서 진행한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에서 필리핀 산업부에 한국의 멸균 돈육가공품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필리핀측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후 절차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2012년 3월 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같은 해 3월 8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단수 여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

복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21일에서 변경된 30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국용 항공권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 기간 연장은 출입국 사무국(이민국)에 입국한 지 30일이 경과하기 전 또는 비자 만료 최소 일주일 전에 여권과 함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1차를 제외하고는 2개월을 한 번에 연장할 수 있으며 2차 연장 시 I Card (외국인카드)가 필수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 해외로 출국할 때는 출국 전 Exit Clearance Certificate(ECC)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국할 때 출국신고서와 함께 ECC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한 Long Stay Visitor Visa Extension(LSVVE)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LSVVE 연장 비용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인 1만 1,500페소,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인 1만 3,900페소이며, 신청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한 이민국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59일 이상) 등이 있다. 체류 예정 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민국 통과 시 '30일'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으므로 이민국 통과 시 스탬프를 찍어주면 그 자리에서 59일짜리인지 확인하고, 만약 30일짜리로 돼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정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비자 기한은 이민국 고유 권한임을 명심해서 정정을 요청할 때도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 통과 시 이민국 직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그 무례한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뒤에 줄 서서 보고 있다가 웃음)로 인해 강제 출국당한 사례가 있다.

필리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게 될 시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SSP(Special Student Permit)을 발급받아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경우 필수 절차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해당 비자는 먼저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지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취업비자 혹은 워킹비자(9g)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 고용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 수속을 필요로 하며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기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필리핀 자국민 우선 고용의 일환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에 있어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규제하고자 Labor Market Test(LMT)를 시행한다 LMT란 기업에서 해당 직위나 포지션 공고 시,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 국적자가 없어 외국인 국적자로 채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고용주는 AEP 신청서 제출 최소 15일 전 외국인 대상으로 한 직무 공식 발표해야 한다. 이는 필리핀 국적자에게 특정 직책에 대한 인력 필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인하는 기업들의 관행과 유사하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노동시장 검사 수행 시 다른 형태의 미디어(인쇄물, 광고,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등)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신문에만 필요한 구인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필리핀 국적자의 어떠한 지원서도 받지 못한 정황과 공증 진술서는 AEP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AEP 신청 중 공고된 직책에 적합한 필리핀 국적자에 의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EP 신청이 기각된다. 노동시장 검사 위반 및 다른 사유로 인해 필리핀 노동고용부에서 AEP 결격 가능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보낼 시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해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투자 비자의 경우 특수 투자 비자(SIRV, Special Investment's Residence Visa), 특정 산업 투자비자 및 조약 투자 비자(Treaty Traders Visa)로 볼 수 있다. 특수 투자 비자(SIRV, Special Investment's Residence Visa)는 7만 5,000달러 이상을 투자할 시에 필리핀 투자위원회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로, 매년 갱신해야 하며 발급 후 주식 투자 및 부동산 구입 등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 산업 투자비자의 같은 경우 필리핀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에 발급되며,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비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SIRV비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약 투자 비자(Treaty Traders Visa)는 필리핀과 이민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데, 해당국에서 회사 설립을 해야 하며 300만 페소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조약 투자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매년 갱신해야 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필리핀 내 취업이 가능하다. 특정 산업 투자 비자와 마찬가지로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였다. 입국 전 질병관리본부의 백신접종 증명서는 불필요하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이트래블(eTravel)을 등록해야 한다. 2024년 2월, 필리핀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이하 BOI)은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트래블(eTravel)에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합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입국 시, 수기 작성 후 대면으로 제출하던 기존 세관 신고서를 전산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리핀 방문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한다.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필리핀 화폐인 페소(Peso)화로 5만 페소(달러는 1만 달러 이상)를 초과하는 반·출입이나 소지한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도 가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세관)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세관심사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해야 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는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참고: 1인당 담배 1보루 또는 연초 50개비, 주류 와인 2리터 또는 양주 1리터 이하 면세). 블루라인을 통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등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즈니스 출장으로 샘플이 과다할 경우 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카톤 박스에 샘플을 담아오는 경우 개봉 요구 가능성이 많음), 목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하면 대개는 그냥 통과된다. 전신품의 경우라도 보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입국했다더라도 출국 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또한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므로 인천공항 등 출국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농수산물 등 반입제한 물품을 필리핀 주무기관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도 세관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시 유의해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63-2)8856-9210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 한인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전화번호	(63-2)8885-7342
주소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re 121 Valero Street, Salcedo Village
홈페이지	http://www.kccp.ph/

○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전화번호	(63-2)8470-1853
주소	2002_A West Tower, Philippines Stock Exchange Center, Ortigas, Pasig City,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 KOICA(한국국제협력단)

전화번호	(63-2)8403-9780
주소	29/F Petron MegaPlaza, 358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전화번호	(63-2)8878-6317
주소	59 Bayani Rd, Taguig, 1630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phil.korean-culture.org/ko

○ 한인회

전화번호	(63-2)8886-4848
주소	1104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Makati City,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www.korea.com.ph/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NEDA)

전화번호	(63-2)8631-0945~55
주소	No. 12 St. Jose Maria Escriva Drive, Ortigas Center, Pasig City
홈페이지	https://neda.gov.ph/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전화번호	(63-2) 7791-3100
주소	Trade & Industry Building, 361 Senator Gil J. Puyat Avenue, Makati City
홈페이지	https://www.dti.gov.ph/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Board of Investments(BOI)

전화번호	(63-2)8897-6682
주소	Industry and Investments Building 385 Senator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1200
홈페이지	https://boi.gov.ph/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

전화번호	(63-2)8708-7701
주소	A. Mabini St. cor. P. Ocampo St, Malate Manila, Philippines 1004
홈페이지	http://www.bsp.gov.ph/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전화번호	(63-2)8462-6600
주소	PSA Complex, East Ave.Diliman, Quezon City
홈페이지	https://psa.gov.ph/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Business World(신문사)

전화번호	(63-2)8535-9901
주소	Raul L. Locsin Building I,95 Balet Drive Extension, New Manila, Quezon City,1112 Philippines
홈페이지	https://www.bworldonline.com/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Manila Bulletin

전화번호	(63-2)8527-8121
주소	Muralla cor Recoletos Sts.Intramuros, Manila 1002
홈페이지	https://www.mb.com.ph/
비고	한국에서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58.6 필리핀페소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4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6.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6.9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0.8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3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400
7	음료	맥주(산미구엘)	330ml	1.100
8	의료	항생제	1정	0.6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4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5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80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2.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300
14	서비스	전기요금	kwh	0.3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7.000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3.200
17	여가	소주(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6.000
18	임금	최저임금(일)	법정최저	8.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5358.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6.700
21	식품	쌀	1kg	0.90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400
23	식품	고기(돼지/소/닭/ 태1)	1kg	6.900
24	식품	계란	10개	2.600
25	식품	우유	1L	4.300

26	식품	식용유	1L	3.50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300
28	주거	수도세	m ³	0.600
29	주거	가스비	1kg	1.6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27.4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34.2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34.2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분	1.20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0.10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1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26.00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26.0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7.0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5.10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25.000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통화 단위는 페소(PESO)로서 약칭은 P 또는 PHP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로는 1,000페소, 500페소, 200페소, 100페소, 50페소, 20페소가 있으며 동전은 20페소, 10페소, 5페소, 1페소, 25센타보, 10센타보, 5센타보, 1센타보가 있다. 참고로 필리핀은 2015년부터 새 디자인의 지폐를 출시했으며, 구권은 2016년 1월 1일 자부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전방법

호텔, 은행(여권 지참), 쇼핑센터, 기타 환전상이 도시 내에 산재해 있으며, 각각 환율이 다르고 사설 환전소에서의 환전이 가장 유리하다. 환전소가 곳곳에 있는 이유는 해외 파견 근로자(OFW)들의 달러화 송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가족, 친척들이 수시로 환전을 하기 때문으로 치안이 좋지 않아 환전소 이용객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폐를 순식간에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카운터에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장자나 여행객 입장에서는 환전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페소로 한국에서 환전해 가는 방법, 둘째는 미국달러로 환전 후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페소로 환전하는 방법, 마지막은 출국 전 국내에서 시티은행 또는 다른 국내은행의 해외직불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는 방법이다. 필리핀 내에서 달러에 대한 환율이 높고 미화가 1만 달러까지 반입할 수 있어 미국달러로 환전 후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페소로 환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으나, 환전소 근처의 치안이 좋지 않고 환전 시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시티은행의 해외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지에서 출금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는 AMERICAN EXPRESS 제휴사의 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팬데믹 시기와 겹쳐 무현금 결제 지향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MASTER 카드가 보편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VISA, DINERS, JCB 등이 쓰이며, 직접 신용카드를 쓰거나 ATM을 이용해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필리핀 내 신용카드 보급률이 증가하고, 카드사 가맹점 여부에 따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아직 현금이나 Gcash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간혹 식당이나 가게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현금은 상시 보유하기를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필리핀은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향해 갈수록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을 경험할 수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운전자들은 매일 평균 66분 동안 교통체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교통수단의 노후화, 더운 열대 기후, 대중교통 미발달로 외국인, 특히 비즈니스맨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와 비행기로 한정돼 있다. 특히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 간 이동 시 내국인은 배를 주로 이용하며 안전이나 시간 면에서 외국인과 상류층은 비행기를 이용한다.

트라이시클 혹은 페디캡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개조한 것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이 근거리 이동 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요금은 약 40페소에서 60페소 사이로 운행되지만,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기사 재량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종종 외국인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 방문이 처음이라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필리핀 수도권 마닐라 지역에서는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으나 구간이 짧은 편이고 소매치기가 빈번하며 지프니나 택시에 비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기노선은 버스가 운행되며, 짧은 거리는 지프니(Jeepney)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대부분의 지프니(Jeepney)는 냉방시설이 없다. 버스도 냉방시설이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되며 냉방시설이 없는 버스는 날치기 및 강도의 위험이 더 크므로 외국인의 경우 냉방시설이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몇몇 시외버스 회사들이 무선인터넷이 구비된 Wi-Fi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장거리 이동 시 Wi-Fi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프니(Jeepney) 보다는 비싸고 안전하나 택시보다는 저렴한 Fx-van 또한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Fx van은 에프엑스(Fx)라고 불리며 냉방시설이 있는 흰색 저가의 SUV차량 또는 van차량이다. Fx는 지프니보다는 운행노선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 대로변을 위주로 운영된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감안,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은 택시 및 에어컨 버스 정도이며 택시의 경우도 가능하면 호텔 택시나 그랩 택시(Grab Taxi)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호텔 벨보이에게 차량 번호를 인지하도록 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버스

필리핀의 버스는 에어컨의 여부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일반버스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에어컨이 장착된 버스보다 저렴하다. 버스는 수도권 마닐라와 가까운 지방으로 갈 때 주된 교통수단이며, 버스 정류장이 많지 않다. 평균 6~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농촌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수면버스'라고 알려진 고급 버스가 있다.

택시

외국인 방문객이 택시 요금과 관련해 시비를 피하려면 입국 시 공항 건물 바깥에서 탑승 쿠폰을 구입해 쿠폰 택시 또는 노란색의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다르나 쿠폰 택시는 메트로 마닐라의 '마카티(Makati)'까지의 요금은 600페소, 공항 택시는 300페소 정도이다).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잔돈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면 탑승 시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운행하고 목적지에서 터무니없는 금액 또는 과도한 팁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탑승 후에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았을 시에는 미터기를 켜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의 기사는 미터기를 켜준다. 택시 기사가 미터기 요금에서 50~100페소를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요금의 두 배 또는 세 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의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하차한 후 다른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기본 요금은 마닐라 기준 45.0페소 + 13.50페소/1km이며 택시 요금 계산 시 미터기에 나온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약간의 팁을 더해 10페소 단위로 요금을 지불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85.50페소의 요금이 나왔을 시 90페소 또는 100페소를 지불한다.

택시 기사의 대부분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므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출퇴근 시간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며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 그랩택시(GRAB TAXI)가 도입된 이후 일반 택시보다는 이용요금이 조금 높지만, 운전기사와 영어로 소통할 수 있고 안전하여 중산층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 통신

핸드폰

휴대폰 사용은 충전 형식의 선불 요금제 또는 정해진 요금제를 미리 신청해 사용한 후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가 있다. 선불 요금제 (Prepaid)의 경우 편의점 또는 요금 충전소에서 유심카드를 구입한 후 원하는 금액의 전화카드를 구입해 충전이 가능하다.

필리핀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로드(Load)라고 부르며 편의점 또는 Load라고 적혀있는 길가 상점에서 100페소, 300페소, 500페소짜리의 전화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후불 요금제(Postpaid)의 경우 통신사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유선전화 신청 시와 같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Globe와 SMART 등 2개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0월 제3 이동통신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7월 8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제3 이동통신업체인 디토(Dito Telecommunication) 사에 통신사업허가증인 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and Necessity(CPNC)를 수여함으로써 디토 사의 통신사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 5월 17일부로 상용화된 디토 통신사는 중국계 기업인 Udenna, Chelsea Logistics, Beijing-run China Telecom 세 기업의 합작회사이다.

인터넷(와이파이)

필리핀 인터넷은 PLDT, Globe, SMART, SKY, CONVERGE 5개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필리핀은 콘도나 지역별로 설치되어있는 회선에 따라 각 인터넷 통신사의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거주 중인 지역에 Globe 통신사의 회선만이 설치되어 있다면, 나머지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는 어려우므로 가장 먼저 가능한 회선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시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유효 신분증 2개,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통신사로 서류를 보낸 뒤 설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필리핀 인터넷은 대부분 1년~2년 약정으로 진행되며, 약정이 끝나기 전 계약을 취소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통신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단기 체류자는 포켓 와이파이 등 다른 방법을 찾는 편이 낫다.

라. 관광명소

○ 히든 벨리(Hidden Valley)

도시명	라구나
주소	Calauan, Laguna
명소소개	마닐라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필리핀 최대 천연 온천장. 울창한 나무들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 리잘공원(Rizal Park)

도시명	메트로마닐라
주소	Roxas Blvd, Malate, Manila, 1000 Metro Manila
운영시간	5:00~21:00
명소소개	마닐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리잘(Jose Rizal)이 1896년 12월 30일 처형된 장소를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다. 주말에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으며 산책 장소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혼자서나 어두워진 뒤에 산책하는 것은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

○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도시명	메트로마닐라
-----	--------

주소	Intramuros, Manila, 1002 Metro Manila
명소소개	300년간의 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이 그들의 거주지로 쓰던 곳이다. 2차 세계대전에 폭격을 맞은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로, 국민적 영웅 호세리잘(Jose Rizal)이 옥살이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수중감옥이 있다.

○ 말라카냥 궁(Malacanang Palace)

도시명	메트로마닐라
주소	Malacañan Palace, JP Laurel Street, San Miguel, Manila, Metro Manila
운영시간	8:00~17:00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명소소개	필리핀 대통령의 관저로서 일부 공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 몰 오브 아시아(Mall of Asia)

도시명	메트로마닐라
주소	Main Mall SM Central Business Park, SM Mall of Asia, Seaside Blvd, 123, Pasay, 1300 Metro Manila
운영시간	10:00~22:00
명소소개	필리핀 최대기업인 SM의 대형 쇼핑몰로, 공항에서 가깝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이다.

○ 이푸가오 라이스 테라스(Ifugao Rice Terraces)

도시명	사가다
주소	Nueva Vizcaya - Ifugao - Mountain Province Rd, Banaue, Ifugao
운영시간	24시
명소소개	산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쌀 경작지(논)로 루손섬 북부인 Mountain주 사가다에 위치. 마닐라에서 버스를 타고 10시간 또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이천년 전에 만들어진 대규모 계단식 논으로,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 내려온 생활문화경관이다. 1995년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에 해제됐다.

○ 루미앙 베리얼 & 수마깅 동굴(Lumiang Burial)

도시명	사가다
주소	South Rd, Sagada, Mountain Province
운영시간	6:00~17:00

명소소개	루손섬 북부 이푸가오 라이스 테라스가 위치한 사가다에 있는 유명 동굴들로, 사가다의 오래된 풍습에 따라 시신을 절벽에 매달거나 쌓아둔 모습을 볼 수 있다. 몇 백년째 보존 중인 관들로 인해 깨진 관에서 해골이 보이기도 하며 동굴 내부를 탐험할 수도 있다.
------	--

○ 빌라 에스쿠데로(Villa Escudero)

도시명	퀘존
주소	Tiaong, Quezon
운영시간	에스쿠데로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리조트로, 농장, 수영장, 공연장과 폭포 앞 식당으로 유명하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현지인뿐 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지이다.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IHAW-IHAW(Singing Cooks and Waiters)(IHAW-IHAW(Singing Cooks and Waiters))

도시명	마닐라
전화번호	(63-2)8832-0658
주소	Ongpauco Building, Roxas Blvd near corner Senator Gil Puyat Ave, Manila
가격	2인 기준 약 1,100페소
영업시간	11:00~15:00, 18:00~23:00
소개	필리핀식 식사와 함께 종업원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종업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내온다.

○ 하버 뷰 (Harbor View)

도시명	마닐라
전화번호	(63-2)8710-0060
주소	South Dr, Ermita, Manila, 1000 Metro Manila
가격	2인 기준 약 1,300페소
영업시간	11:00~24:00
소개	마닐라에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해산물 식당

○ 제리스 그릴(Gerry's Grill)

도시명	마카티
전화번호	(63-2)7903-0717

주소	1223 Esperanza Street 3rd Level, 3 Greenbelt Dr, Makati, Metro Manila
가격	2인 기준 약 900페소
영업시간	10:00~2:00
소개	그릴에 구운 필리핀 식 바베큐 전문점

○ 로물로 카페(Romulo Cafe)

도시명	마카티
전화번호	(63-2)8478-6406
주소	148 Jupiter St. corner Comet St., Bel-Air, Makati, 1209 Metro Manila
가격	2인 기준 약 1,300페소
영업시간	11:00~15:00, 18:00~22:00
소개	전 외교관이 오픈한 필리핀 정통 레스토랑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 가야(KAYA)

도시명	마카티
전화번호	(63-2)8898-0934
주소	Power Plant Mall, Rockwell, Makati City
가격	2인 기준 약 1,300페소
영업시간	11:00~21:30

○ 한국관(KOREA GARDEN RESTAURANT)

도시명	마카티
전화번호	(63-2)8895-5443
주소	128 Jupiter Street, Bel-Air, Makati City
가격	2인 기준 약 1,200페소
영업시간	11:30~14:30, 17:00~22:00

○ 마산가든(MASAN GARDEN)

도시명	마카티
전화번호	(63-2)8896-5094

주소	29 Polaris, Bel-Air, Makati, 1209 Metro Manila
가격	2인 기준 약 1,200페소

○ 다래정(Da Rae Jung)

도시명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전화번호	(63-2)8246-9069
주소	Second Floor, The Fort Strip, 28th Stree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Metro Manila
가격	2인 기준 약 900페소
영업시간	24시간 영업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두짓타니 마닐라(Dusit Thani Manila)

도시명	마닐라
주소	1223 Epifanio de los Santos Ave, Makati, 1223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7238-8888
홈페이지	https://www.dusit.com/dusitthani/manila/
숙박료	SINGLE 4,500페소 DOUBLE/TWIN 6,0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마닐라 호텔(The Manila Hotel)

도시명	마닐라
주소	1 Rizal Park, Ermita, Manila, 0913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527-0011
홈페이지	https://www.manila-hotel.com.ph/
숙박료	SINGLE 5,500페소 DOUBBLE/TWIN 9,900페소

○ 페닌슐라 호텔(Peninsula)

도시명	마카티
주소	Corner of Ayala and Makati Avenues, 1226, Makati,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887-2888
홈페이지	https://www.peninsula.com/en/manila/5-star-luxury-hotel-makati
숙박료	SINGLE 7,700페소 DOUBLE/TWIN 8,2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샹그릴라 마카티(Shangri-la Makati)

도시명	마카티
주소	Makati Avenue corner, Ayala Avenue, Makati, 1200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813-8888
홈페이지	https://www.shangri-la.com/en/manila/makatishangrila/
숙박료	SINGLE 7,200페소 DOUBLE/TWIN 7,8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홀리데이 인 마카티(Holiday Inn & Suites Makati)

도시명	마카티
주소	Glorietta Mall,, Palm Drive, Ayala Center, Makati, 1224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7909-0888
홈페이지	https://www.holidayinn.com
숙박료	SINGLE 5,600페소 DOUBLE/TWIN 12,0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아이엠 호텔(I&M Hotel)

도시명	마카티
주소	7862 Makati Ave, Makati, 1210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7755-7888
홈페이지	https://www.imhotel.com
숙박료	SINGLE 5,900페소 DOUBLE/TWIN 6,7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뉴월드 호텔(New World Hotel)

도시명	마카티
주소	Esperanza Street corner Makati Avenue, Ayala Center, Makati, 1228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811-6888
홈페이지	https://manila.newworldhotels.com/en/
숙박료	SINGLE 7,600페소 DOUBBLE/TWIN 9,5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샹그릴라 EDSA(Shangri-la EDSA)

도시명	만달루용
주소	1 Garden Way, Ortigas Center, Mandaluyong, 1650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633-8888
홈페이지	https://www.shangri-la.com/en/manila/edsashangrila/
숙박료	SINGLE 7,500페소 DOUBBLE/TWIN 8,3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도시명	파라냐케
주소	Belle Ave, Parañaque, 1701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691-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philippines/hyatt-city-of-dreams-manila/mnlhy
숙박료	SINGLE 1만 1,000페소 DOUBLE/TWIN 1만 2,000페소

비고	숙박료에 10%의 봉사료와 12%의 부가세 추가되며, 상기 숙박료는 당일 Walk-In 기준. 미리 예약하면 더 저렴함.
----	---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 게스트하우스

o Stay Malate Hostel(Stay Malate Hostel)

도시명	말라떼
주소	1750 M. Adriatico St, Malate, Manila, 1004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525-1534
홈페이지	https://www.staymalate.com/
숙박료	1인 400~800페소(도미토리)

o Makabata Guesthouse&Cafe(Makabata Guesthouse&Cafe)

도시명	말라떼
주소	2218 Leveriza St, Malate, Manila, 1004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254-0212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akabataGuesthouse/
숙박료	SINGLE: 1,150페소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과거에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특히 마카티 시내는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나 최근 들어 강도, 납치 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인 지프니에서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강도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 것이 좋고 과다한 현금 보유, 귀중품이나 보석 소지 및 화려한 옷차림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인에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곤란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길을 걸을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지인들도 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음으로 해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휴대폰은 현지 암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기 또는 소매치기범이 많아 휴대폰을 사용하다 납치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핸드백을 팔에 가볍게 걸치거나 할 경우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쉽다. 만약에 납치기 또는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범인을 뒤쫓아 가지 말고 물건을 포기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다리고 있던 일행에게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 청소년에게 소매치기를 당한 한인 남성이 뒤쫓아가 물건을 되찾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지인들이 흥기(총기 등)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나 임산부 등이 길을 묻는 등 접근해 관심을 끈 후 일행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사업가나 회사원, ADB 직원이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함) 유인한 후 강력한 수면제가 든 음료 등을 권해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으면 돈을 빼앗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지인이든 한국인이든 낯선 이의 친절함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합석하지 말아야 하며, 술집은 혼자 출입하면 타겟이 되기 쉬우니 삼가는 게 좋다. 마중 나오기로 미리 약속된 경우가 아닌데 누군가 마중 나와 있다면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공항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로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사업상 한꺼번에 여러 사람과 만나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만나자고 하면서 차량을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누군가 차량을 보내겠다고 하면 납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번호는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다.

공항택시를 가장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운행 도중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항에서 티켓 공항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택시 또는 자가용 이용 시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잡상인 또는 어린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창문을 열 경우 손을 뻗어 가방 또는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가거나 근처에 있던 아이들까지 무리지어 몰려들어 돈을 요구해 당황하게 된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필리핀의 범죄율은 높아져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택시 운전자 또한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택시 운전사가 에어컨을 통해 수면가스를 내보낸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가져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운전석 창문을 연다든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런 경우 탑승석 창문을 열거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다른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시내에서 환전소를 이용하기보다 환율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특히 달러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주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은행에는 다른 볼 일로 방문하기도 하지만, 환전소 방문자는 반드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남부의 민다나오 섬 근처의 회교 차치 구역은 특히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안데오로 시 제외), 술루(Sulu), 잠보앙가(Zamboanga), 바실란(Basilan), 타위-타위(Tawitawi) 군도 및 팔라완(Palawan)의 Puerto Princesa 이남 지역에 대해 3단계 여행경고지역으로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 여행 필요 시 대사관에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언성을 높이는 등 현지인을 자극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현지인과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더라도 일대일로 차분하게 잘못을 지적해야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언성을 높이면 상대방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기 쉽고 이로 인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 911 (National Emergency Hotline)
- 주요 병원
 - St.Luke's Medical Center, Taguig, Metro Manila: (63) 2 8789 7700
 - Makati Medical Center, Makati City, Metro Manila: (63) 2 8888 8999
 - Asian Hospital, Alabang, Metro Manila: (63) 2 8771 9000

2) 여권/지갑 분실

○ 여권 분실 시

- 대사관 방문 및 여행증명서(필리핀 출국 시 1회만 사용 가능)/여권 발급 신청
- 준비물: 여권 사진 2매, 한국 신분증
- 발급비용 : 여행증명서 350페소, 단수여권 750페소
- 여행증명서 발급 후 필리핀 이민국 본청 방문하여 여행증명서에 입국 확인 도장 받음.
- * 홈페이지 : <https://www.immigration.gov.ph/faqs/travel-req>

○ 지갑 도난, 분실 시

- 경찰 신고: 사건 장소 및 일시, 사건내용 등을 117로 전화, 신고
- 국내 연고자로부터 송금받기를 희망하면 한국 외환은행 마닐라 지점(848-1988)과 연락, 신분증을 제시하고 송금받을 수 있음.

3) 응급 전화번호

- 긴급상황 핫라인: 911
- 경찰서: 117
- 대사관: (63-2)8856 9210
- 영사과: (63-2)8856 9210
- 대사관 당직 전화(근무시간 외): 0917-817-5703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주택 임차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찾아 가격, 위치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업체 보유 매물에 대한 소개 및 방문 등 임차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로는 Rentpad, Property 24 등이 있으며 그 외 Megaworld, Rockwell Property 등 부동산 개발/건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매매 및 임대를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임대인이 약 한달 치월세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경제적 또는 법적인 문제에서 부담을 덜 수 있어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체결 방식을 선호한다.

Carousell Property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주인이 직접 매물을 내놓거나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직접계약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호하지 않으며 임차로 인하, 보증금 문제 등에 까다로운 임대인을 만나거나 해외 여행/거주 중인 임대인을 만날 시, 여러가지 애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약할 때는 계약 종료/갱신 사전고지 기한, 수리 등의 문제, 퇴거 시 원상복구 조건 등을 고려해 입주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될 수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하자 등에 관한 문서확인을 해두는 것도 바람직함).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Furnished인지 Unfurnished인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진다. Furnished는 모든 가구가 구비된 집을 말하며, Unfurnished는 가구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빈집을 말한다. 기본적인 가구(침대, 에어컨, 냉장고 등)가 포함된 Semi-Furnished 형식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필리핀 시공사는 콘도 유닛과 주차장을 별도로 판매하며 유닛 주인이 주차장을 구입한 경우 월 임대료가 평균 5,000페소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관리비 포함), 유닛 주인이 주차장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주변 유료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다.

가격은 Furnished가 가장 비싸며 같은 집이라도 Unfurnished에 비해 최소 10% 이상 비싸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료에 관리비를 포함해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매월 임차료 외에 전기이용료와 수도이용료 및 인터넷, TV 등 각종 공과금만 내면 된다.

임차료 납부방식은 1개월 또는 2개월 선불이 원칙이며 2개월분의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내게 된다. 따라서 총 4개월분의 임차료를 입주 시점에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계약 시 처음 1개월 또는 2개월 치 선불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또는 10개월에 대해 11장 또는 10장의 선일자 수표(Post Dated Check)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년 이내 단기 체류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합의가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임차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임대계약보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은 주인들이 임차료를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1년 이내의 단기 체류를 꺼리는 임대인이 많으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처음의 임차보증금 2개월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가구가 구비되어 있는(Furnished) 집을 임대했을 때 계약 종료 후 고장 나거나 부서진 가구의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임차보증금만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다.

전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이미 가설된 전화선을 사용하므로 별도 전화번호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규 전화개설은 기간통신업체인 PLDT(Philippines Long Distance Telephone)에 하게 되나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Globe Telecom 등 기타 통신업체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단시간에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 증명, 청구지 주소 증명, 소득 증명을 위한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

는 현지 운전면허증, 외국인 카드(i-Card) 또는 여권 복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지 주소 증명 서류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청구서, 전기요금 청구서, 임대계약서, 현지 운전면허증, 또는 고용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청구지 주소 증명을 위한 서류와 현지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 그러므로 청구지 주소와 소득 증명을 위해서는 청구지 주소 증명에 필요한 서류 중 2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대부분 통신업체에서 인터넷, 유선, 케이블TV가 포함된 통합상품(bundle)을 선보이고 있다. 각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통합상품 종류와 요금을 면밀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압/플러그

필리핀 전기규격은 220V/110V 겸용(50Hz)이며, 한국의 플러그를 그대로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플러그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 휴대용 어댑터를 구입해야 한다.

식수

필리핀은 강, 호수, 지하 저수지가 주요 수자원이며 정수시설이 좋지 않아 전반적인 수질에 문제가 있다. 수돗물을 음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미네랄 워터를 구매해서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 구입 시에는 정규 자동차 대리점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며 브로커를 통해 차량을 구입 할 경우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 할 경우에는 가까운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를 통해 관련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LTO에서 발행하는 서류에는 OR(Official Receipt)과 CR(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있다. 또는 주중 낮을 이용해 휴대폰 문자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LTO VEHICLE 차 번호'를 보내는 번호 2600으로 전송하면 자동차의 기본 정보 및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기존 차량 소유자의 신분, 차량의 상태, 마일리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침수가 잦기 때문에 차량의 침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과 관련한 필수 서류(영수증(OR), 차량등록증(CR), 거래서류)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하며, LTO를 통한 차량등록은 기관 사정에 따라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인내가 필요하다.

은행을 통한 오토론(차량 담보대출) 구입은 배우자가 현지인일 경우 또는 사업체에 한해 가능하며 구입 시에는 최소 차량가격의 10~40%가량을 납부한 후 차액에 대해 새 차의 경우 1~6년, 중고차는 1~4년의 납부 기한에 따라 7~4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율이 높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일시불 구입이 훨씬 유리하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할부를 잘 안 해주려고 하거나 현지 거주비자(근로, 은퇴, 학생 비자 등) 소지자인 경우 50% 일시불, 나머지는 할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차량가격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신형/중고차)이 비싼 편이다. 특히 2018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부담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50%가 적용되며, 전기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가격별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다음과 같다.

- 600,000페소 미만 = 4%
- 600,000페소~1,000,000,000페소 = 10%

- 1,000,000,000페소~4,000,000,000페소 = 20%
- 4,000,000,000페소 초과 = 50%

운전면허 취득

필리핀은 국제교통협약 가입국이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지의 교통단속반(MMDA)의 경우 잘 모르고 오히려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의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규 발급인데 이 경우에는 새로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발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만 17세 이상
- 영어 또는 필리핀어(타갈로그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함.
- 필리핀에 거주한 지 1개월 이상
- Student Permit 받은 지 1개월 이상
- 필리핀에 체류 가능한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학생비자, 워킹비자, 은퇴비자 등).

두 번째 방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한국 면허증 공증을 받은 뒤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에서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방문 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영사확인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서 원본, 여권원본 및 외국인등록증(ACR-CARD)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학생비자, 워킹비자, 은퇴비자 등 6개월 이상 장기비자 확인. 관광비자로는 응시 불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신청 가능).

- 공증신청서(한국운전면허) 1부
-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양식 2부 작성
- 번역인증서 1부
- 여권(사진면, 입국스탬프면, 필리핀 비자면) 복사 각 2부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복사 2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자필위임장 및 대리인 여권사본 1부(수수료: 200페소, 1시간 소요)
- 필리핀에 체류 가능한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학생비자, 워킹비자, 은퇴비자 등. 관광비자로는 응시 불가능하나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신청할 수 있음)

공증을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우편반송료 200페소가 필요하며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사본만 필요하다. 공증 담당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 전화: (63-2)-8856-9210 내선 260번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필리핀 현지 주요은행
 - BDO Unibank (<https://www.bdo.com.ph>)
 - Metrobank (www.metrobank.com.ph/)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BPI) (<https://www.bpiexpressonline.com/>)

- 한국계 주요은행
 - IBK기업은행 (63-2)8643-0700
 - KEB 하나은행 (63-2)8848-1988
 - 신한은행 (63-2)8405-6300

계좌 개설방법

필리핀에서는 달러화 및 현지화 계좌가 모두 필요하므로 2개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점이 많은 대형은행(UNIVERSAL BANK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좌개설을 하게 되면 임차료 등의 고액 경비나 공과금, 현지직원 급여 등을 회사 수표나 개인 수표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며 Crossed Check의 경우 도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 인출은 현금 자동 인출기(ATM)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다.

계좌 개설 시에는 여권과 소형사진 2매(은행 지정양식 부착용으로 대부분 1cmx1cm 또는 2cmx2cm 사이즈), 계좌 분류에 따라 정해진 최소 입금 금액을 지참해야 하며 관광비자만 발급받은 상태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수속을 마치고 비자 사증을 발급받은 후에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신규계좌 개설 시에는 최소 은행마다 적게는 2,000페소(50달러)에서 많게는 1만 페소(250달러)의 예치금이 요구되며 최소 예금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벌금으로 나가며 잔고에 예금이 없는 상황이 한 달 지속되면 자동으로 계좌는 닫히게 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International School Manila(ISM)

도시명	Taguig, Metro Manila
커리큘럼	K-12 학제

학비	<p>□ 2024-2025학년도 학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프로그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3~4세 : \$9,140 + 288,700 - 초등학교(유치원~4학년) : \$14,240 + 452,000 - 중학교(5~8학년) : \$15,500 + 494,400 - 고등학교(9~10학년) : \$16,580 + 526,300 - 고등학교(11~12학년) : \$18,480 + 587,900 ○ 특수 학습 지원 프로그램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3~4세 : 연간 \$29,260 - 유치원~12학년 : 연간 \$45,440 - 기타 필수 비용 ○ 입학금 : \$4,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개선비 : \$4,500 - 지원서 접수비 : \$600 - 추가 프로그램 학비(해당 시) ○ 영어 추가 언어(EA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학기당 \$1,625 - 2년차: 학기당 \$1,100 - 학습 지원 서비스(L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 1 지원: 학기당 \$840 - 레벨 2 지원: 학기당 \$1,890 - 레벨 3 지원: 학기당 \$2,940 ○ 언어 치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 1 지원: 학기당 \$575 - 레벨 2 지원: 학기당 \$1,200 ○ 기타 비용(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지원비 : 학기당 \$4,600 - 심리 교육 평가비 : \$1,300 - 재평가비 : \$700 - 언어 치료 평가비 : \$250 - 약기 대여비 : 약기당 \$160 - 차량 스티커 : 첫 번째는 무료, 추가 스티커는 100~500 - ID 카드 : 첫 번째 학생, 부모 2명, 운전사 1명, 기사도우미 1명은 무료, 추가 ID는 100 <p>학비 납부 방식</p> <p>* 각 금액은 명시된 대로 달러(USD)와 페소(PHP)로 나뉘어 있으며, 두 통화로 각각 지불해야 하나, 별도 요청시, 달러로 일괄 결제가능 예를 들어, 초등학교(유치원~4학년)의 연간 학비는 \$14,240와 452,000으로 구성되며, 이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p>
홈페이지	https://www.ismanila.org/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 현지학교

○ De La Salle Greenhills

도시명	만달루용
커리큘럼	K-12 학제

학비	연간 103,000페소
홈페이지	http://www.lsg.edu.ph/
비고	남학교 였으나 2020년 부로 남녀공학으로 변경됨

○ Xavier School

도시명	산후안
커리큘럼	K-12 학제
학비	연간 110,000~130,000페소
홈페이지	https://www.xs.edu.ph/
비고	남학교

○ Philippine Science High School

도시명	퀘존
커리큘럼	국제 과학교육 기준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pshs.edu.ph/
비고	국립학교

○ Saint Pedro Poveda College

도시명	퀘존
커리큘럼	개별 맞춤 교육
학비	연간 140,000페소
홈페이지	https://www.poveda.edu.ph/
비고	여학교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마. 병원

○ Our Lady of Lourdes Hospital

도시명	마닐라
주소	46 P. Sanchez St, Santa Mesa, Manila,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716-8001
진료과목	종합병원

◦ Makati Medical Center

도시명	마카티
주소	2 Amorsolo Street,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전화번호	(63-2)8888-8999
진료과목	종합병원

◦ St.Luke's Medical Center

도시명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주소	Rizal Drive cor. 32nd St and, 5th Ave, Taguig, 1634 Kalakhang Maynila
전화번호	(63-2)8789-7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Medical City General Hospital

도시명	올티가스
주소	Ortigas Ave, Pasig,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988-1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Capitol Medical Center

도시명	퀘존
주소	Quezon Avenue Cor. Scout Magbanua St, Diliman, Quezon City, 1103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372-3825
진료과목	종합병원

◦ Phil. Heart Center for Asia

도시명	퀘존
주소	East Ave, Diliman, Quezon City, Metro Manila
전화번호	(63-2)8925-2401

진료과목	심장질환
------	------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Mall of Asia

도시명	마닐라
주소	Main Mall SM Central Business Park, SM Mall of Asia, Seaside Blvd, 123, Pasay, 1300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www.smsupermalls.com/mall-locator/sm-mall-of-asia/information

o Glorietta

도시명	마카티
주소	Ayala Center, Makati, 1226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www.ayalamalls.com/main/malls/ayala-glorietta

o Greenbelt

도시명	마카티
주소	Ayala Center, Paseo de Roxas corner Legaspi Street, Ayala Center, Makati City,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www.ayalamalls.com.ph/malls-philippines/greenbelt

o Robinsons Place - Manila

도시명	말라떼
주소	M. Adriatico Street, Ermita, Manila
홈페이지	http://www.robinsonsmalls.com/mall-info/robinsons-place-manila

o Market! Market!

도시명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주소	Carlos P. Garcia Avenue (also known as C-5) cor. 26th Stree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 Me
홈페이지	https://www.ayalamalls.com/main/malls/ayala-market-market

○ Greenhills

도시명	산후안
주소	Connecticut Street, San Juan,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www.greenhills.com.ph/

○ SM Megamall

도시명	올티가스
주소	EDSA cor. Julia Vargas Avenue, Ortigas Center,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www.smsupermalls.com/mall-locator/sm-megamall/information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 식품점

○ ASSI Mart

도시명	마카티
주소	ASSI Bldg, 109 Neptune, Bel-air, Makati, 1209 Metro Manila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재료 및 식품

○ Big Mart

도시명	마카티
주소	GLDF JKL Building, 5385 General Luna Cor. Don Pedro St., Makati, 1210 Metro Manila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재료 및 식품

○ Puregold

도시명	마카티
주소	H, Santos, Makati City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 SM Hyper market

도시명	퀘존
주소	24 Main Ave, Cubao, Quezon City, 1109 Metro Manila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 Rustans Marketplace

도시명	타기그
주소	Central Square, Taguig City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 S&R

도시명	타기그
주소	32nd cor 3th Ave, BGC, Taguig City
취급 식료품	수입 식료품
비고	창고형 마트로 회원제 운영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 기타 편의시설

○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도시명	마닐라
주소	1000 Kalaw Ave, Ermita, Manila, 1000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web.nlp.gov.ph/nlp/
소개	마닐라 소재의 필리핀 국립 도서관으로, 필리핀 정치사박물관, 국립역사위원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과 인접해 있음.

○ Manila Polo Club

도시명	마카티
주소	McKinley Rd, Makati,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www.manilapolo.com.ph/
소개	마닐라 소재의 필리핀 최대 골프클럽으로, 수영장, 승마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 운영
비고	멤버십제도 운영

○ New Lasema Spa Jjimjilban

도시명	마카티
주소	8846 Sampaloc St., corner Estrella St., San Antonio Village, Makati, Makati, 1203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NewLasemaSpa/

소개	필리핀 경제 중심지 마카티에 위치한 한국식 찜질방
----	-----------------------------

○ PhilSports Complex

도시명	파시그
주소	Meralco Avenue, Pasig, 1600 Metro Manila
홈페이지	https://psc.gov.ph/en/
소개	필리핀체육연맹이 운영하는 스포츠 복합시설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기도 함.

<자료원 :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New Year's Day	2024-01-01	2024-01-01
설날	2024-02-10	2024-02-10
성목요일	2024-03-28	2024-03-28
성금요일	2024-03-29	2024-03-29
부활절	2024-03-30	2024-03-30
용사의날	2024-04-09	2024-04-09
알피트르(Eid al-Fitr) 라마단 공휴일	2024-04-10	2024-04-10
Ninoy Aquino Day	2024-08-21	2024-08-21
National Heroes' day	2024-08-26	2024-08-26
All Saints' Day	2024-11-01	2024-11-01
Additional Special (Non-Working) Days	2024-11-02	2024-11-02
Bonifacio Day	2024-11-30	2024-11-30
Feast of Immaculate Conception of Mary	2024-12-08	2024-12-08
크리스마스이브	2024-12-24	2024-12-24
Christmas Day	2024-12-25	2024-12-25
Rizal day	2024-12-30	2024-12-30
Last day of year	2024-12-31	2024-12-31

10. KOTRA 무역관 안내

○ 마닐라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Unit 1, 14th Fl. Ore Central, 31st Street, Corner 9th Avenue,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Metro Manila
- 전화번호: (63-2)8894-4084/ 8843-2155
- 이메일: manila@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마닐라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 출발 시
 - 택시: 공항에서 택시로 약 30~50분 소요
- 건물 도착 후
 - 로비에서 방문객 등록 후 임시 출입증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관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2024 필리핀 마닐라 포장재 전시회 [ProPak Philippines]	2024-01-31 ~ 2024-02-02	World Trade Center, Metro Manila(WTCMM)	Informa Markets
2024 필리핀 마닐라 건설·건축 전시회 [Worldbex]	2024-03-14 ~ 2024-03-17	World Trade Center, Metro Manila(WTCMM)	WORLDBEX Services International
2024 필리핀 마닐라 국제 식품 전시회 [IFEX Philippines 2024]	2024-05-26 ~ 2024-05-28	World Trade Center, Metro Manila(WTCMM)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s and Mission (CITEM)
2024 필리핀 마닐라 식품 전시회 [WOFEX Manila]	2024-07-31 ~ 2024-08-03	SMX MANILA Convention Center	Peptarsus Corp.
2024 필리핀 마닐라 건설 전시회 [PILCONSTRUCT]	2024-04-04 ~ 2024-04-06	SMX MANILA Convention Center	Global-Link MP Events International Inc.
2024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프랜차이즈 전시회 [FRANCHISE ASIA PHILIPPINES(FAPH)]	2024-04-12 ~ 2024-04-14	SMX Convention Center, Manila City	필리핀 프랜차이즈 협회 Philippine Franchise Association
2024 필리핀 마닐라 국제 가구박람회	2024-03-07 ~ 2024-03-09	SMX Convention Center, Manila City	Global-Link MP Events International Inc.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